



사랑 · 빛 · 자유의 전당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2024학년도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사례집



아카데미코칭센터

발행처 | 대구대학교 아카데미코칭센터

발행일 | 2024학년 11월

주 소 | 38453)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전 화 | 053) 850-5854, 5050

<https://mcms.daegu.ac.kr/user/acc/>

C · O · N · T · E · N · T · S

I. 아카데미코칭센터장 인사말_ 04

II.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소개_ 05

III.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수상작_ 07

- “빠빅, 목적지가 변경 되었습니다.”: 복수전공을 통해 찾은 나만의 길 08
- 슬기로운 편입생활 13
- 미래 그리고 이행 18
- 복수전공 A to Z 22
- 새로운 나의 대학생활과 미래 26
- 나의 두 번째 대학 생활 30
- 새로운 학문을 전공한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의 발전과 도약 34
- 가리워진 길에서 찾은 나침반과 손전등 40
- 대구대학교 OST 44
- 진정한 나를 찾기까지 49
- 전과를 경험하며 느낀 것들 55
- 보이지 않는 미래와 휴학이 두려운 당신에게 60





사랑 · 빛 · 자유의 전당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I . 아카데미코칭센터장 인사말

II .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소개





아카데미코칭센터장 인사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들이, 뒤따르는 다른 분들께 밝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경험 하나하나가 인생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큰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진솔하게 전해주시는 그 경험이, 백 마디 설명보다 값진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꺼내기 쉽지 않았던 고민의 순간들을 공유해 주셔서 성공사례집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노력에 찬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시간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또 아카데미코칭센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카데미코칭센터 소장 **최정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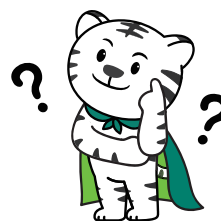




학적변동 성공사례 공모전 소개

가. 공모전 목적

1. 대학 내 학적변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2. 올바른 학적변동 성공사례를 제시하고 양질의 대학생활 적응 지원
3. 학생들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공감대 확산 및 정보 공유



나. 공모전 개요

1. 공모명 : 2024학년도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2. 공모 주제 : 학적변동(휴·복학, 부·복수(융·복합)전공, 전과, 편입, 재입학) 성공사례

다.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기준

- 심사위원

소 속	성명	비고
경영학부	최정운	아카데미코칭센터장
보건의료정보학과	황진섭	교수
경영학부	배연호	교수

- 심사기준

심사기준					
영역	주제 적합성	전달력	완성도	경험성	활용성
배점	20	20	20	20	20
총 배점 : 100점					



사랑 · 빛 · 자유의 전당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Ⅲ.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수상작



2024학년도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사례집

DAEGU UNIVERSITY

제목	“삐빅, 목적지가 변경되었습니다.”: 복수전공을 통해 찾은 나만의 길		수상	최우수상
			학과(부)	사회복지학과
	주제	복수전공	학년	4학년

“삐빅, 목적지가 변경되었습니다.”: 복수전공을 통해 찾은 나만의 길

“가장 큰 위험은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페이스북(Facebook)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운전을 하다 보면 네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따르다가도, 문득 다른 길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다. 처음 계획한 목적지는 분명하지만, 가는 도중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가능성이 나를 끌어당기는 순간이 있는 것이다. 나 역시 처음에 정해진 길만을 따라가다, 도중에 눈에 띈 새로운 길에 이 끌려 목적지를 변경하기로 결심했다. 그 선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마치 네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내 선택을 시험하는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큰 도전과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목적지를 변경하고 그 길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비록 그 길이 빠르고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나를 더 넓은 세계로 데려가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지금도 나는 그 결정을 통해 나만의 새로운 길을 계속해서 탐색하고 있다. 이제, 그 순간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 한다.

2016년,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긴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하던 바둑에서 인공지능이 승리한 것이다. 이 사건은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일상과 미래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진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주변의 어른들과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앞으로는 기계가 많은 일을 대신할 거야. 그러니 사람을 직접 대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나도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진로를 정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렇게 처음으로 검색창에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검색했고, 여러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평소 사람들과의 소통을 즐기고, 사회성이 좋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학이나 사회복지학과를 자연스럽게 후보군에 넣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내가 진정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았다. 주체적으로 고민하기보다는, 주변의 이야기에 따라 수동적으로 진로를 설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다양한 분야를 탐색할 수 있는 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현실적인 조언에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어느 학과로 갈지 얼른 정해야 나중에 학점 채우는 것이 편해.” 선배의 이 말을 듣고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자 했던 초기의 취지는 점점 희미해졌다. 빨리 전공을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지면서 혼란스러워졌다.

예상과는 달리 나는 생각보다 빠르게 전공을 정할 수 있었다. 같이 수업을 듣는 동기들 대부분이 사회복지학과를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 역시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편승하게 되었고,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했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유명했기 때문에, 손해 볼 일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다. 그렇게 이번에도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사회복지학과로 전과한 후 처음에는 이 분야가 내게 맞는 길이라고 스스로 다독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면에서 갈등이 점점 커졌다. 그 이유는 주변의 친구들이 저마다 강한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이 사회복지사가 되려는 이유도 명확했다. 어떤 친구는 가족의 장애 경험이 사회복지사라는 길로 이끌었고, 또 다른 친구는 오랜 시간 동안 아픈 할머니를 돌보며 자연스럽게 사람을 돕는 일에 대한 소명을 느꼈다고 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점점 자신과 비교하게 되었다. ‘과연 나는 이 일을 진정으로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수업을 들을 때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분야에 솟구치는 열정을 찾지 못했다. 그저, 이 학과에 들어왔기 때문에 학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다. 내가 진정으로 즐기고 몰입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러던 중, 우연히 친한 형에게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다. 그는 구구절절한 조언 대신 한 청년의 자기계발서를 선물해 주었다. 자기계발서는 때로 뻔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은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특히, “젊을 때는 남들과 조금 다르게 살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보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다가왔다. 그 말은 마치 내게 이렇게 묻고 있는 듯했다. “너는 이 삶이 어때? 목적지를 한 번 바꿔 볼래?”

책을 읽을수록 내면에서 새로운 길에 대한 설렘이 점점 커졌다. 창업가들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습이 큰 자극이 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나 역시 창업을 통해 나만의 길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설렘보다는 겁이 더 났다. 사회복지학과에서의 학업만으로도 충분히 도전적인데, ‘과연,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는 것이 가능할까?’, ‘내가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불안과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라는 열망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갈등의 시소는 열망으로 점점 기울었다.

그러다 문득, 1학년 때 들었던 [사회적 기업의 이해] 수업이 떠올랐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모델로, 사회복지와 경영을 접목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었다. 특히, 그 수업에서 A+을 받으며 사회적 기업의 가능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던 기억이 남아 있다. 그렇게 나는 사회복지에서 얻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며 더 넓은 시각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 네비게이션은 새로운 신호를 보냈다. “빠빅, 목적지가 변경되었습니다.”

3학년 1학기에 처음으로 경영학과 수업을 들으며 새로운 세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여전히 갈등은 있었지만, 사회적 기업 창업을 향한 열정이 더 커졌다. 경영학은 마케팅, 인사, 생산 관리, 재무 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었고, 그중에서도 마케팅이 가장 흥미로웠다. 사회복지학에서 배운 사회적 가치를 경영학에서 다루는 데이터 기반의 분석 및 전략적 접근 방식과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이 나를 더욱 매료시켰다.

사회복지학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문이다. 나는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과 같은 실무 경험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람을 느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더 넓은 시각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실현할 방법을 찾고자 했다. 사회적 문제 해결의 더 큰 틀을 바라보면서, 이를 경영학과 접목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과정에서, 마케팅의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케팅은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반응과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춘 효과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도구였다. 이는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회복지학에서 다뤘던 사람 중심의 가치를 데이터와 전략적 사고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학문의 접점은 매우 자연스러웠다.

경영학 강의를 들을수록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갈증이 커졌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했고, 실무 경험을 통해 경영학적 역량을 키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터득하고 싶었다.

그래서 ‘링크리어’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기회를 찾기 시작했으나, 대부분의 실무 기회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다. 지방에서는 최신 마케팅 트렌드를 접하기 어려웠고, 내가 추구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네트워크와 정보가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서울로 가기로 결심했다. 서울은 다양한 산업과 마케팅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었고, 최신 정보를 얻고 실무 경험을 쌓기에 최적의 환경이었다. 3학년 2학기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서울로 올라가 세미나와 강연에 참석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최신 정보를 얻었다. 이 경험들은 단순한 학습 이상의 의미를 주었고, 나의 시야를 확장시켜 사회적 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자산이 되었다.

그러던 중, 학사 공지에서 학점교류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마침내 오랫동안 찾아 헤맨 기회를 발견한 듯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에서 마케팅을 더 깊이 배울 수 있었다. 망설임 없이 4학년 1학기에 서울시립대학교로의 교류 학기를 시작했다.

서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지 활동이 있다. 첫째는 한국장학재단의 사회적 리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에서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과 아이디어를 나누며, 어떻게 하면 사회적 가치를 더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사회적 기업이 가진 잠재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깊이 탐구할 수 있었다.

둘째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참여한 ‘소비자행동론’ 팀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서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는 선배와 협업하며, 마케팅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론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선배와의 협업을 통해 광고 대행사의 운영 방식뿐만 아니라, 실무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에는 배운 것들을 직접 적용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두 가지 작은 실천을 시작했다. 먼저, 스마트 스토어에서 해외 상품을 구매 대행하는 사업자를 등록해 상품의 판매 가능성을 고민하고, 상품 설명 작성법을 연구하면서 마케팅 감각을 키우고 있다. 또한, 자영업을 하는 친구의 블로그 관리를 도우며, 키워드 선택과 콘텐츠 구성 방법을 함께 고민하며 마케팅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고 있다.

사회복지학과 경영학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은 사회적 기업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이 두 가치를 통해 사람과 사회를 이해하는 넓은 시야를 얻었고, 이제는 마케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사회복지에서 배운 사회적 가치와 경영학에서 익힌 실질적인 전략이 만나, 나만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사실, 지금도 내가 선택한 새로운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인지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목적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현저히 줄었다는 것이다. 가던 길을 묵묵히 가다가도, 그 길이 내가 원하던 곳이 아니라고 느껴지면 과감하게 새로운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이제는 새로운 목적지를 찾는 것이 두렵지 않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드로우앤드류 저자의 책 『럭키드로우』에서 읽은 “죽은 물고기만이 흐름을 따라간다.”는 말처럼, 나는 흐름에 몸을 맡기기보다는 내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법을 배웠다. 이제 내 인생의 네비게이션은 나를 더 넓은 길로 안내하고 있다.

잠깐, 장기적인 목표를 소개하자면 식품 산업에 특화된 광고 대행사를 창업할 것이다. 이후, 지역 사회의 소상공인들과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학에서 배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학의 실질적 전략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마지막으로, 만약 나와 비슷한 고민을 겪은 적 있다면 두려움에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경험에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다. 때로는 목적지를 변경하는 것이 진정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동기가 되기를 바란다.

2024학년도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사례집

DAEGU UNIVERSITY

제목	슬기로운 편입생활		수상	우수상
			학과(부)	재활심리학과
	주제	편입학	학년	3학년

슬기로운 편입생활

새로운 시작

나는 2024년, 만 29세에 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로 편입했다.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늦은 나이에 대학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지만, 늦은 나이에 편입학을 선택한 것은 내 전공에 대한 깊은 열정과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 전적대학교에서는 소방학과를 전공하며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관심사를 찾지 못한 채 휴학하게 되었다. 이후 8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학업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결국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다시 학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학업에 대한 갈망

막상 다시 학업에 뛰어들려고 하니 어떤 분야를 공부해야 할지 막막했다. 전적대학교에서 공부했던 소방학은 흥미가 없었고, 내가 진정으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8년간의 직장 생활 동안 위암 수술을 받았던 경험이 떠올랐다. 직장 생활 4년 차에 암세포가 발견되어 다행히 초기에 수술할 수 있었지만, 당시의 마음은 너무 아팠고 힘들었다. 26살의 나이에 암을 발견한 후 불안하고 예민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려웠다. 요양 중에는 부모님께 상처되는 말과 행동을 많이 했고, 복직 후에도 어린 암 환자라는 사실이 콤플렉스로 작용해 친했던 동료들과의 관계를 회피하게 되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 1년 후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내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고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우울하고 불안한 상태로 살았고, 친한 친구들을 만나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과 우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불안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마음속에 눌러 담고 억압하며 회피하며 지냈다. 이 시기부터 심리 상담과 심리치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지만, '정신과'라는 곳에 가는 것은 여전히 무섭고 꺼려졌다. 그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찾지 못한 채 여태 살아왔다.

재활심리와의 만남

암 수술 경험을 떠올리며 깨달았다. 내가 진정으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분야는 재활심리라고.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보니 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가 최고의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마침 대구대학교에서 편입생을 모집하고 있었고, 편입생 특별성적장학금도 제공하고 있었다. 전적 대학 기준으로 학점이 3.5 이상이면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다. 다행히도 내 전적대학 성적은 4.28이라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편입학에 지원을 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재활심리에 관련된 자격증을 알아보며 나의 목표를 다시 정리하게 되었고, 전공 공부를 하는 것이 몹시 기대되었다. 전공 공부를 통해 남들을 위한 심리치료를 배우는 과정이 기대되었고, 내 마음도 자연스레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가 있었다.

합격의 기쁨

합격 소식을 확인하고는 날아갈 듯이 기뻐다. 그동안의 우울과 불안이 한 번에 씻겨나가는 기분이었다. 2024년 3월, 드디어 개강했다! 처음 방문한 대구대학교는 생각보다 너무 커서 재활과학대학 건물을 찾는 것이 힘들었다. 네비게이션을 켜서 겨우 찾아온 재활과학대는 정말 웅장했다. 사실 대구대학교의 모든 건물이 인상적이었다고, 전적대학교와 비교하니 학교가 훨씬 크고 시설이 좋아 보였다. 강의실도 매우 넓고, 책상과 의자도 편안해 자꾸 전적대학교와 비교하게 되었다.

재활과학대학 건물 1층에는 해피라운지가 있었다. 시설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고, 학생들이 언제든지 공부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모든 건물마다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다. 개강 첫 날, 학교 곳곳을 걸어 다니며 구경을 했다. 창과도서관에 가보니 정말 컸다. 도서관 1층에 있는 라운지도 시설이 좋았고, 엄청나게 다양한 책들이 있어 편입학 첫 날에 대구대학교에 대한 애교심이 절로 뿜어져 나왔다. 도서관 근처에는 '미즈 컨테이너'라는 식당이 있었다. 대구 동성로에서 몇 번 가봤던 음식점이었는데, 대구대학교 안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가게가 대구대학교 출신 학생이 창업한 곳이라는 사실이었다! 학교 안에 학생식당이 아닌 일반 음식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는데 대구대학교 학생이 창업한 가게라니 더욱 흥미로웠다.

조금 더 걸어가니 '서브웨이'와 '파리바게트'가 눈에 들어왔다. 학교 안에 프랜차이즈 가게가 있다니 정말 놀라웠다. 이렇게 개강 첫 날, 대구대학교에 빠져들었고 학업에 대한 의지가 다시 한 번 불타올랐다.

적응의 어려움

3월 한 달간, 처음 접하는 심리학 전공에 적응하느라 매우 힘들었다. 생소하고 낯설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았다. 내가 생각했던 공부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해봐야겠다는 마음에 한 학기 내내 라운지에 살았다. 공강 시간에는 무조건 라운지에 있었고, 스마트 폰을 보더라도 라운지에 있으려고 했다. 라운지에 있다 보면 다른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이 자극이 되어 나도 자연스레 공부하게 되었다.

한 학기 동안 최선을 다해 공부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구미에서 대구대학교까지 매일 4시간을 통학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중간고사를 치고 나서는 잘 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불안했다. 나만 잘 친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잘 컸을까봐 걱정되었다. 기말고사 준비를 할 때에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성적과 감정의 변화

결과는 6과목 중 5과목이 A+였고, 딱 한 과목이 B+였다. 10년 만의 대학생생활이라 이 성적에 매우 만족했고 기분이 좋았다. 사실 학기 중 공부하면서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돼서 불안했지만,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나와서 너무 감사했다. 학교의 라운지와 창파도서관을 잘 이용하며 좋은 시설에서 공부하니 집중도 잘 되었다. 또한 비교과 프로그램도 유용하게 활용했다. 처음 접했을 때, 학교에서 학생을 위해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이 놀라웠고, 마이리지를 적립해 추후 장학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신기했다. 학생을 위한 복지가 이렇게 좋다니, 진작에 대구대학교로 편입하지 않은 것이 후회될 정도였다.

새로 사귀는 친구들

대구대학교에 편입하기 전, 나이가 다른 학생들보다 많아 걱정이 되었지만 생각보다 쉽게 좋은 친구들을 사귀 수 있었다. 이 친구들은 모두 20대 초반이지만, 재활심리학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나보다 훨씬 많아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강의 중의 조별 토론에서 알게 된 친구들인데, 친구들과의 토론은 정말 즐거웠다. 각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의견을 나누는 게 흥미롭고 서로에게 배우는 게 많았다. 대학원 진학에 대한 정보와 전공 공부에 대한 지식, 진로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주며 나의 학업에 큰 도움이 되어주었다.

이 친구들 덕분에 대구대학교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고, 공부하는 재미도 더해졌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그 덕분에 대구대학교 생활이 더욱 즐겁고 풍부해졌다.

변화와 성장

한 학기를 끝내며 들었던 감정은 행복, 해방감, 성취감이었다. 자존감이 크게 올라갔다. 10년 동안 공부하지 않고 일만 해왔던 내가 갖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여 좋은 결과를 냈다는 사실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경험은 내가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든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확고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내가 대구대학교에 편입한 후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다. 첫 번째는 성실함이다. 게을렀던 내가 이제는 공부를 위해 성실해졌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6시 50분에 통학버스를 탔고, 집에는 저녁 8시에 도착했다. 집에 돌아오면 씻고 식사를 한 후 공부를 했다. 주말에는 잠을 자기 바빴던 내가 일찍 일어나 스터디카페에 가서 공부했다. 이렇게 성실하게 변한 내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랐고 나 스스로도 내가 자랑스럽다.

두 번째는 자존감 향상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내가 스스로 대견하게 느껴졌다.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 현재의 나를 바라보니, 공부하는 내 모습이 자랑스럽고 멋있게 느껴졌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경험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길을 찾았고, 그 길에서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에 편입하기 전의 나는 우울하고 불안했다. 어린 암 환자라는 콤플렉스와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이 나를 붙잡고 괴롭혔고, 이러한 감정은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내 마음이 단단하고 튼튼한 게 느껴지며, 앞으로의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미래를 향한 다짐

이제 나는 대구대학교에서의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지난 학기 동안의 도전과 성취는 나에게 중요한 자산이 되었고,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대구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재활심리라는 분야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경험한 아픔과 고통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의욕적으로 만든다.

나는 내 경험을 바탕으로 남을 돕고, 의미 있는 일을 해나가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고 있다. 암 투병 과정에서 느꼈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대구대학교에서 얻은 학업 성취감을 통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며 전문적인 전공 지식을 쌓아갈 것이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과거의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 나는 더 강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그 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구대학교에서의 경험이 나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학년도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사례집

DAEGU UNIVERSITY

제목	미래 그리고 이행		수상	우수상
			학과(부)	전자전기공학부 (전기공학전공)
	주제	복수전공	학년	2학년

미래 그리고 이행

서문

전공 융합을 이룬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간다. 전기 + 기계 전공은 스마트 모빌리티의 주력 학과이다. 평소에 전기 자동차 및 자율주행, UAM과 같은 미래 이동수단과 로봇 산업에 관심이 많으면 도전해 볼 수 있는 전공들이며, 나는 스마트 모빌리티 엔지니어를 고등학생 때부터 꿈꾸고 확산하는 꿈을 펼치기 위해 대학교 입학 후 전공 융합을 도전하였다. 여러분들도 꿈과 하고 싶은 직업을 빨리 찾고 이행하기 바람에 이 글을 적는다.

CHAPTER (1) 미래 그리고 이행

어릴 적부터 조립과 분해에 매료되었던 나는 중학교 시절, 자동차의 매력에 푹 빠졌다. 멋진 자동차를 보면 설레었고, 언젠가 나만의 자동차를 설계하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그래서 특성화고 전자기계과에 진학하여 자동차 부품 설계와 다양한 기계공학법을 배웠다. 하지만 기계에서 나는 기름 냄새와 자동차 매연이 너무 불쾌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중,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고, 자동차 엔진이 사라지고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장착된다는 내용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전기 모터가 RC가 같은 작은 동력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전기차가 대세가 되리라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이 순간, 나는 전기와 기계의 융합을 통해 미래를 선도할 엔지니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대구대학교 전기공학전공에 진학하여 전기공학의 기초를 배우고, 2학년 1학기에는 기계공학 복수전공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나는 융복합 엔지니어로 거듭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 3학년에는 전기 기기, 자동제어, CAE 등의 과목을 수강하며 스마트 모빌리티 마이크로전공에 집중할 예정이다.

자동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은 차량이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급 센서 기술, 데이터 처리 능력,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AI는 차량이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상황에 맞춰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기술은 사고를 줄이고, 교통 체증을 완화하며, 사람들의 이동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나는 이러한 변화를 선도할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빛과 7.5라는 동아리를 들어가 C언어도 곁들여서 공부하였다. 그리고 전기와 기계, 그리고 AI를 결합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개발하여 미래의 모빌리티 산업에 힘쓰고 싶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단순한 자동차 설계를 넘어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싶다.

CHAPTER (2) 사회적 문제를 공학적으로 해결하자!

로봇 기술은 전통적인 공학의 경계를 넘어 통합적이고 혁신적인 현대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로봇 기술을 인공지능화하는 과정은 미래 기술의 핵심 요소로 부각 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특히, 로봇과 자동차와 같은 이동 수단에 C언어를 활용하여 프로그래밍함으로써, 이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구현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자동차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한 자동차가 급정거하면, 이를 인근 차량 들이 즉각적으로 인식하고 반응하여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인공지능이 차량의 주행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더욱 정교해질 것이다.

또한, 화학적 또는 기계적으로 생명에 위험이 있는 장소에 로봇을 배치함으로써,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 또, 재난 구조 작업이나 위험물 처리 현장에 로봇을 활용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 줄 수 있다. 로봇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염두에 두고 대학에서 융합 전공 수업을 수강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라 생각한다.

전공 융합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직접 현장에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회와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도 큰 흥미를 느끼고 있다. 특히, 차세대 모빌리티 AI 교육과 2024 자율주행 자동차 제작 및 경진대회 참여 결과로 장려상 수상 경험은 나에게 큰 자긍심과 동기를 부여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팀원들과 협력하여 실제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내가 미래에 더욱 큰 발상과 업적을 이루는 데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과 실적을 기반으로, 로봇과 이동 수단의 통합 기술을 발전시키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싶다.

내가 꿈꾸는 미래는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더 나아가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계속해서 열심히 학습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 나갈 것이다.

CHAPTER (3) 더욱 넓어진 시야

전공 융합이 나에게 가져다준 변화는 매우 깊고 폭넓다. 기계와 전기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관점과 접근 방식을 배우게 되었고, 이는 설계와 문제 해결에 대한 나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켰다.

기계 부품의 형상 설계는 단순히 형태나 구조를 고려하는 것에 그치지 않다. 전기 모터와 배선의 안정된 설치 위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계적 요소가 전기적 요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각 부품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들이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융합적 사고를 통해, 나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여러 자동차 기업 및 학술 대회 참관, PBL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더욱 깊은 이론 지식과 사람들과의 소통 능력, 해결 방안 등을 공부하였다. 특히 한국 자동차 연구원과 한국 자동차 공학회에서 주최한 춘계학술대회는 매우 인상 깊었다. 한국 자동차 연구원에서 최신 자동차 서스펜션을 관람하면서 기계적 감각을 키울 수 있었고, 이어진 전기자동차 기술 동향 및 구동 모터 요소 기술 설명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기술과 전기 자동차의 구동 모터 기술을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과 공부는 내가 전공을 어떻게 융합해 나갈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공해 주었다. 최근에는 스마트 모빌리티 RC 무선 자동차 경진대회에 출전하여 직접 자동차를 제작하고 구동하였다. 결과는 4등(장려상)을 수상하여 스마트 모빌리티 엔지니어의 꿈은 더욱 커졌다. 이제는 단순히 기계적 설계나 전기적 설계에 국한되지 않고, 두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적인 설계를 고민하게 되었다. 나의 사고방식은 각 전공이 분리된 두 개의 영역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변화할 것이다. 결국, 전공 융합을 통해 얻은 나의 변화는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 팀워크, 소통 능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설계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CHAPTER (4) 미래 계획과 발전 가능성

나의 꿈은 기계 설계와 전기 모터 설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스마트 모빌리티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다. 기계와 전기의 통합 설계는 미래의 이동 수단과 로봇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단순히 이동의 수단을 넘어서, 인공지능과 IoT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경로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I의 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교통사고 감소와 더 나은 에너지 효율성을 실현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학습이 필수적이다. 역학, 전기기기 같은 전공 융합 교과목 이외에도 C 프로그램과 차세대 모빌리티 AI 교육과 같은 전공과목 및 비교과 학습을 찾아서 고급 기술을 학습해야 하며, 특히, 전기 모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부나, 자율주행 시스템의 센서 데이터 처리 공부는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미래에는 로봇과 이동 수단의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들도 다양해질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 환경오염, 교통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나는 기계 설계와 전기 모터 설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 이를 통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더 나아가 기술이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결국,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기술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발전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여정을 통해 지속 성장하고, 사회에 이로운 엔지니어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2024학년도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사례집

DAEGU UNIVERSITY

제목	복수전공 A to Z		수상	우수상
			학과(부)	국어교육과
	주제	복수전공	학년	2학년

복수전공 A to Z

[Prologue. 나의 목표, '사서 교사 자격증을 지닌 국어 교사'에 대해]

저는 이 글을 통해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학 생활 중 스스로 우물 안 개구리라고 느낀 적이 있나요? 두 번째,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한 경험이 있나요? 이러한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저에게는 복수전공 이수가 이러한 경험을 극복하고 더 다채로운 미래를 꿈꾸고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복수전공을 본인이 목표로 하는 진로와 효율적으로 연결할 때, 타 지원자와 차별화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1학년 2학기에 복수전공을 신청하여 합격한 후, 2학년 1학기 때 시작한 문헌정보학과 교직 복수전공은 지금의 저를 발전시키고 또 다른 저를 만들어 낸 중요한 경험이었습니. 복수전공을 통해 국어교육학과 문헌정보학 두 학문을 동시에 습득하면서, "사서 교사 자격증을 지닌 국어 교사"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복수전공의 경험을 통해 저는 우물 안에서 벗어나 나만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부·복수(융복합)전공이란 대체 무엇일까 : 부·복수(융복합)전공의 개념

대구대학교 홈페이지의 학사 안내 > 수업 > 전공 종류 · 이수 창에 있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복수전공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수전공은 재학 중 제1전공을 제외한 학과 또는 학부의 전공을 이수하여 2개 이상의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 융복합전공과 자기설계전공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로 부전공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전공은 제1전공 이외의 전공 교과목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면 별도의 전공 영역을 "부전공"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부·복수(융복합)전공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복수전공이 '별도의 전공 학위 과정을 이수했다'라는 점에서 두 가지 학위 모두에 대해 인정을 받는 반면, 부전공은 '공부를 좀 더 했다'라고 인정받아 졸업증서에는 '주전공'이 아닌 '부전공'으로 표기된다는 것입니다.

#1 부·복수(융복합)전공을 고민하는 당신에게 : 나의 부·복수(융복합)전공 계기

심리학자 알프레트 아들러는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주어졌는가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대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저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졸업하고 싶다는 열망이 컸습니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듯이, 최소 4년이라는 대학 생활 동안 학교의 다양한 제도와 혜택을 활용해 제 경험을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이 있던 문헌정보학과 복수전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나만의 길을 찾아서 : 나의 부·복수(융복합)전공 과정

이 글을 쓰는 시점은 제가 복수전공을 시작한 지 딱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복수전공을 신청한 이후, 어떤 과목을 수강할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지만, 저는 문헌정보학과와 학과 홈페이지를 여러 번 접속해 어떤 과목이 어떤 학년에 개설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꿈꾸는 비전인 "사서 교사 자격증을 지닌 국어 교사"에 맞춰 교직 복수전공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고, 교직 복수전공 이수생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8과목(사실 그중 7과목만 이수하면 됩니다)의 존재도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관련 과목들과 본전공의 시간표를 고려하여, 반드시 2~3과목은 복수전공 수업으로 수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2학년 1학기의 시간표를 살펴보면, 저의 본전공인 국어교육과에서도 여러 분야의 전공(고전 소설, 현대시, 현대문법, 중세문법)이 개설되었고, 복수전공인 문헌정보학에서도 다양한 전공(독서지도, 도서관경영, 정보학, 목록법)이 열렸습니다. 듣고 싶은 과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시간표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국어교육과에서는 고전소설(고전소설론), 현대문법(국어학개론), 중세문법(언어자료론)을 선택했고, 문헌정보학과에서는 목록 이론 수업과 꼭 듣고 싶었던 윤희운 교수님의 공공도서관경영, 독서지도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독서지도 수업은 교차설강 교과목으로, 본전공과 복수전공 양쪽에서 전공으로 인정받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헌정보학과와 독서지도 수업은 국어교육과의 수업과도 연결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독서를 지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차설강 기회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두 전공의 연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운 좋게도 1학년 2학기의 성적이 4.2를 넘어서 추가로 3학점을 수강할 수 있었고, 이 3학점은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복수전공이 제 학업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학업에 정진하며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힘을 길러, 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3 부·복수(융복합)전공을 통해 한 걸음씩 다가온 나의 성장 : 전후 변화

복수전공을 시작한 이후, 제 삶은 눈에 띄게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두려움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복수전공을 통해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고 여러 분야의 지식을 쌓으면서 "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졌습니다. 복수전공 과정에서 저는 스스로의 진로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학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듣고 과제를 수행하며 제 능력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새로운 기회를 마주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복수전공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제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를 더 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꿈을 향해 나아가며, 새로운 도전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4 나의 색깔을 더하다: 부·복수(융복합)전공을 통해 느낀 점

부·복수(융복합)전공을 시작하면서 제 삶은 마치 빈 캔버스에 색을 채워나가는 것처럼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과목을 동시에 듣는 것이 마치 다양한 색의 물감이 섞여 있는 듯한 혼란 그 자체였지만, 그 안에서 나만의 독특한 색깔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복수(융복합)전공을 통해 전공들을 조화롭게 엮어내며, 학생들에게 더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문헌정보학과 국어교육의 융합은 제가 미래의 사서교사로서 어떤 가치를 더할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의 교류는 제 색깔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접하게 되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영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단순한 지식의 교환을 넘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복수전공은 단순히 학문적 성장을 넘어, 저를 더 다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전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이런 색깔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으로 새로운 길을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캔버스에 나만의 색깔을 더해가며, 저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복수전공을 통해 얻은 경험은 제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나의 진정한 모습은 앞으로의 여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pilogue, 꼭 전하고 싶은 말]

부·복수(융복합)전공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동일하게 주어지는 4년의 시간 동안,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력이 풍부해지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전공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을 골라 듣고, 효율적으로 나만을 위한 커리큘럼을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졸업 후 구직시장에 나선 제 친언니도 '진작 부·복수(융복합)전공을 통해 00(고등학교 때부터 가고 싶어 했던) 학과 강의를 들었더라면...'이라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학기 중에 조금만 부지런해진다면, 경험 및 이력서에 부·복수(융복합)전공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추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취업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는 사회 속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부·복수(융복합)전공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분명 그 끝에는 가치 있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모두 파이팅!

2024학년도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사례집

DAEGU UNIVERSITY

제목	새로운 나의 대학생활과 미래		수상	우수상
			학과(부)	사회학과
	주제	휴학, 복수전공	학년	3학년

새로운 나의 대학생활과 미래

1. 서론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000입니다. 이 글에서 저는 저의 학적 변동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현재 군입 휴학과 군 제대 복학 그리고 사회복지학과로의 복수전공 이수까지 총 3번의 학적 변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제 학적 변동 과정의 순서대로 계기, 과정, 전 후 변화, 느낀 점들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2. 군입휴학

저는 코로나19시기에 학교에 입학해서 학교 내외에서 여러 경험을 하는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또 이 시기에 저는 진로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되어있지 않았었고 마땅히 무엇을 해야겠다 하는 목표 또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19 상황과 겹쳐 제 일상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좋은 학점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일상이 2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 제 몸과 마음은 너무 지쳐 있었고 저는 2학년 2학기가 끝나고 새로운 일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군입 휴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를 하게 되어 노인 요양 시설인 공동생활 가정과 주간보호센터에서 복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복무를 시작하였을 때에는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인데다가 복지 기관이라는 특성상 일이 힘들어 사실 쉽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기관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저를 손자처럼 예뻐해 주시고 하면서 빠르게 적응하여 편한 분위기에서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지기관에서 복무한지 1년정도 지났을 때쯤부터 저는 “내가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고 사회복지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듣고 난 뒤에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복무를 하는동안 너무 많은분들이 미흡한 저를 좋아해주시고 저도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어서 제가 기관에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고 이런 마음에 사회복지사 라는 직업에 대해 찾아보고 공부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복무기간 동안 시간이 엄청 느리게 간다고 했는데 저의 1년 9개월이라는 복무기간은 지나고 돌아보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아쉬운 마음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보니 제가 있는동안 제가 좀 더 알고 배웠었다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복무를 하면서 학업과는 조금 떨어진 채로 처음 보는 사람들과 만나며 지내다 보니 지쳐 있던 제 몸과 마음도 회복이 되고 있다고 느꼈고 무엇보다 어르신들 덕분에 너무 많이 웃어서 “나도 저분들을 웃음 짓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3. 군제대복학

복무를 끝마친 후 저는 제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았고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대구대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다니고 있는 대구대학교는 사회복지계열이 정말 유명했었기 때문에 제 진로에 대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고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배움을 시작하는 것을 선택하는데 별로 큰 어려움 없이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군입학과 복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들과 도움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저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무를 마친 뒤부터는 학교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게 되었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별생각 없이 다니던 학교가 사회복지사라는 꿈이 생기고 난 후에 대구대학교의 사회복지 역사에 대해 배우고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로 좋은 학교인지 알게 되고 난 뒤부터는 뭔가 학교가 자랑스럽고 제가 대구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복학을 준비하면서 사회복지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계열 학과들에 대해 공부하면서 우선 복수전공제도와 전과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전공과 전과제도는 재학생의 신분으로만 신청 할 수 있어서 휴학생인 저는 신청을 할 수 가 없었습니다. 3학년 1학기로 복학을 해야 하는 저는 “제가 너무 성급하게 단편적인 경험만을 가지고 진로를 선택하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우선 사회복지의 기초과목인 ‘사회복지학개론’수업을 먼저 수강 해보고 나에게 정말 맞는 길인지 생각해보아야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저는 2024년도 3월에 복학을 신청하였고 대구대에서 열리는 많은 사회복지학개론 과목 중 한 강의를 수강신청 하여 대구대학교에서 3년차인 3학년 1학기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 사회복지학과 복수전공

저는 2024년도 1학기에 복학하여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에서 개설된 000 교수님의 사회복지학 개론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무원으로서의 경험이 있었지만 사회복지학을 학문으로 배운다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었습니다. 학문으로서 사회복지를 배우다 보니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제가 복무할 당시에 했던 잘못된 행동들 그리고 궁금했던 것들과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학문으로서 다가가 공부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전혀 경험이나 학습을 해보지 못한 분야라서 완전 처음부터 새롭게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저의 사회복지무원 시절 경험에 빗대어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기억들을 더듬어가며 새롭게 알아가는 재미가 생겨 사회복지학개론을 공부하는 게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또 교수님이 강의력이 아주 좋으셔서 매 수업시 간 집중도 있고 즐겁게 공부하게 되어 대구대가 사회복지 분야가 유명한 이유가 있구나 생각해 보게 되고 다시 한 번 대구대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덧 한 학기가 지나갔고 정말 재밌게 공부한 덕분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학개론 과목을 한 학기 동안 수강해 보니 아직 사회복지의 수많은 과목 중에 기초 과목 한 과목만 수강한 것뿐이지만 정말 재미있게 공부했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게 될 제 미래가 그려지면서 이 과목을 공부하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복수전공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복수전공과 전과를 놓고 고민을 했었는데 복수전공이 두 개의 학위를 가지고 졸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끌렸고 저의 본 학문인 사회학도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복수전공을 결정하였습니다. 대구대학교는 복수전공이 자유로워 1학기 학기 중 신청 기간에 복수전공을 신청하여 복수전공전형에 합격되어 현재 2024학년도 2학기는 정식으로 '사회복지학과'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2학기 사회복지학과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있고 아직까지 배운 것들은 많지 않지만 사회복지사 2급 자격 필수 과목 위주로 이수를 하고 있고 이제는 배움이 즐겁고 학교를 다니는 게 2년 전에 비해서 훨씬 즐거워졌습니다. 2개의 전공을 이수하는 게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하고 싶은 꿈이 생기고 나니 매일 새롭게 알아가는 게 설레면서도 기분이 좋아 즐거운 마음으로 수강하고 있습니다.

대구대의 사회복지 분야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교수님들도 유명하신 분들도 많고 강의자료나 커리큘럼, 강의 내용, 수업환경이 너무 좋아서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고 제 꿈을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복수전공을 이수하면서 그동안 제가 배워왔던 사회학 과목들과 비슷한 점들도 있고 현재 저의 실생활에 밀접한 부분들까지 배우고 있다 보니 무심코 지나왔던 순간들에 되돌아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당장 저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 앞으로 배울 것들을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5. 나의 대학생활과 앞으로의 미래

저의 대학 생활은 군입휴학 전과 후, 그리고 복수전공 이수 전과 후로 완전히 변화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쳐있었던 제 자신에게 휴식을 줄 수 있었고 삶의 활력도 주었고 무엇보다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하고 싶은 것을 찾고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소중한 기회이자 성공적인 학적변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이수 가능한 복수전공 제도 덕분에 큰 리스크나 잃어버릴 것 없이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라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강의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제 인생에 다가올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제가 무슨일을 하고 있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대구대학교를 다니면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의 저와 앞으로의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말했던 대구대학교 복수전공의 기회와 사회복지학과와 환경은 지금까지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터닝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2개의 학사학위를 가지고 졸업을할 수 있고 더 많은 것 들을 배울 수 있음에 힘들긴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년 반 정도 남아 있는 저의 대학 생활에 또 어떤 도전과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저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행복합니다. 졸업까지 남은 시간도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경험들을 통해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성공적인 졸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사례집

DAEGU UNIVERSITY

제목	나의 두 번째 대학 생활		수상	장려상
			학과(부)	행정학과
	주제	전과	학년	2학년

나의 두 번째 대학 생활

나는 1학년 1학기에 전과를 결심했다. 2023년 3월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의 신입생이 되었다. 내가 처음으로 듣는 전공은 저널리즘과 광고 pr이었다. 공부라는 것은 참 신기하게도 내가 좋아할 것이라 여겼던 것은 생각보다 흥미가 가지 않을 수도, 생각지 못한 것은 예상외로 적성에 맞기도 하다. 저널리즘을 공부하기 위해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입학했던 난 저널리즘과는 맞지 않았다. 언론의 역사적 변화는 신기하였으나 학문에 관심이 가지 않았고 강의를 위한 시사 읽기는 조금은 버겁기도 했다. 반대로 광고 pr 강의의 경우 강의를 기다려질 만큼 재미있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짧은 문구나 영상으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이 흥미로웠다. 다른 학우들의 발표를 보는 것 또한 즐거웠고 내가 직접 발표하는 것도 즐거웠다. 교수님께 꽤 좋은 점수를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광고를 보는 것이 즐거웠을 뿐 내가 직접 저런 광고를 만들겠다는 자신감은 들지 않았다. 나는 트렌디하지도 창의성이 넘치지도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의 특성상 촬영과 편집이 빠질 수 없는데, 이것도 자신이 없는 분야이기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다.

앞으로의 전공 생활을 걱정하던 중 교양으로 듣던 행정 강의를 있었다. 이 강의 또한 내 취향에 맞아 재밌게 듣던 강의였다.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많은 이론들 중 한 이론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조직이론 중 “인간관계론”이었다. 인간관계론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이론이다. 조직을 바라볼 때 과학적 접근으로 시스템 개선을 하던 고전적 이론과 달리 조직을 기계가 아닌 사회로 보았다. 인간에게 과학적 환경이나 경제적 이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닌, 감정과 같은 사회 심리적인 것에도 영향을 받으며 그들의 인간관계 또한 생산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조직원의 감정과 조직 내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현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당연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직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지와 인간관계라고 할 정도로 중요시 되던

것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서 이론이라 불린다는 것이 신기하였다. 이때부터 행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행정은 쉽게 말하면 국가의 작용이다. 하지만 국가는 수많은 국민들로 만들어져있고 이 국민들 간의 활동이 곧 작용이 된다. 행정의 역사는 곧 사람들의 역사인 것이다. 행정에서의 이론들은 사람들을 관찰하며 만들어진 것이며 그 시대상을 담고 있다. 이 시대따라 발전하고 변화하는 인간관에 흥미가 가서 난 전과를 결심하게 되었다.

사실 1학기까지만 하여도 전과와 복수전공 중 무엇을 할지 선택하지 못하였다. 행정에 흥미가 갔다고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이 싫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가 선택하여 입학한 학과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았고, 복수전공을 선택하기엔 과연 내가 두 전공 모두 잘 해낼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였다. 학적변동은 1학년 2학기에 신청을 하여 2학년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2학기 때 두 학과의 전공을 모두 들어보며 결정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2학기 시간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의 전공과 행정학과 전공 강의 시간이 겹치는 것을 보고 생각보다 쉽게 결정을 하였다. 망설임 없이 행정학과 전공을 시간표에 담았다.

그 당시엔 나름대로 큰 결정이었다. 전과를 마음 먹었지만 확실해지지도 않은 1학년 2학기에 타 학과 전공을 듣는 것은 생각보다 불안했으며 외로웠다. 사회과학대가 아닌 법행정대에서 강의실을 찾아가는 것부터 문제였다. 낯선 건물과 한 명도 모르는 학생들은 3월을 떠올리게 했지만 나 빼고 모두가 서로 아는 같은 과 학생이라는 것은 3월과 달랐다. 내가 들었던 강의는 ‘행정학원론 2’였다. 행정학원론 1은 이미 1학기에 있었고 2학기 행정학과생들의 전공은 위 강의와 이어지는 행정학원론 2였던 것이다. 다시 한번 인간관계론이 생각이 났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 인간관계라는 것. 강의보다 어려웠던 것은 강의실에서 붐 떠 있는 내 상황이었다. 강의는 정말 재밌었다. 원론이어서 크게 어렵지 않았고 내가 원했던 행정학을 배울 수 있어 기뻐다. 하지만 출석만큼은 정말 싫었다. 행정학과엔 이미 23학번 000가 있었다. 출석을 호명하실 때 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 000로 불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괜히 혼자 기가 죽었다. 행정학과 학생이 되고 싶지만 행정학과가 아닌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000. 출석 중 오로지 나만 학과명이 불린다는 게 꼭 나만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한 번은 늦게 기상을 해 급하게 등교했더니 강의실에 아무도 없었던 적이 있다. 빈 강의실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하니 몇 분 전 온라인 강의를 올라와 있었다. 휴강 공지를 못 받아서 생겼던 일이었다. 정말 별일 아니었지만 이날 정말 처음으로 전과 결심을 한 것을 후회했다. 전과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시에는 마치 행정학과가 날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단점들을 상쇄할 만큼 행정학을 배우는 것이 좋았기에 며칠 뒤 난 전과 신청을 하였다.

전과 신청은 의외로 간단했다. 학과장님의 서명을 받고 신청서를 전과할 학과 사무실에 내기만 하면 됐다. 학과장님의 서명을 받기 전 잠시 상담시간을 가졌었다. 나의 전담 교수님이시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말 미디어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였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너무나도 쉬운 신청에 돌아가는 길에 싱숭생숭했던 기억이 있다. 전과 승인에 대한 두려움, 바뀔 학과 생활에 대한 떨림. 모든게 합쳐져 기대가 되었던 것 같다. 새로운 학기 시작 전 타이거즈를 통하여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학교생활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막상 행정학과생이 되고 나니 전공에 대한 걱정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론과 편집, 발표 등 활동이 섞여 있던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달리 행정학과는 이론 위주의 강의였기 때문이다. 또한 학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서 혼자 시간표를 짜며 많은 고민을 하였다. 2학년이 되며 들어야 하는 전공이 많아진 것도 부담이 되었다. 하지만 원하던 학과에서 내가 좋아하는 학문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날 도와주었다. 직접 학과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보들을 보며 앞으로 들을 전공을 체크 하고 학교 에브리타임을 통해 전과 관련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틈틈이 확인하였다. 수강할 강의를 강의계획서를 확인하고 에브리타임의 강의평을 보며 강의의 구성과 교수님의 성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다.

원하던 학문을 배우는 만큼 잘하자는 마음으로 공부 또한 열심히 하였다. 공장 시간에는 단과대 라운지를 활용하여 틈틈이 예습 하였다. 짧은 시간에 거창한 것은 못 하더라도 미리 전공 책을 읽으며 부족한 전공 지식을 채우려고 노력하였다. 이로 인해 강의를 들을 때 처음 들어 헤매는 일이 없어 한결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었다. 2학년이 되며 전공으로 단순히 '행정'만이 아닌 조직론, 지방론과 경제학 등 더 다양하고 폭넓은 강의를 듣게 되었다. 모든 항상 강의를 재미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새롭게 배워나가는 것이 즐거웠다. 특히, 내가 전과를 결심하게 된 강의의 교수님께 듣는 수업은 깊은 울림을 주었다. 처음에는 타이거즈에 학적이 바뀌지 않아 문의하고, 과 단 제공지 카톡방에 초대할 못 받아 문의하는 등 전공 말고도 신경 쓸 일이 많아 바빴지만 모든 것이 안정된 지금, 난 행복하다. 낯설던 단과대는 이제 어느 강의실이 어디 위치하였는지 알고 라운지는 더욱 익숙해졌다. 새로운 친구도 사귀며 이제 정말 행정학과 000가 된 것이다. 전과를 마음 먹기 부터 전과를 하기까지 마냥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난 전과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전과나 복수전공 등 진로에 관한 고민을 상담한다면 난 무조건 무엇이든 하는 것을 추천할 것이다. 전과를 준비하며 설레기만 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내가 전과한 것을 아는 친구들은 내게 상담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 과를 바꾸거나 학적에 변동이 생긴 친구는 아직 없다. 다들 환경이 바뀌고 학문이 바뀌고 친구다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나 또한 전과를 할 때 3년이나 남은 학교생활이 달렸다고 할 수 있기에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으나 난 전과를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요즘은 흔히 간과하는 것 같지만 대학교는 학문을 배우는 곳이다. 원하는 공부가 있다면 배우는 것이 지식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이다. 마음껏 욕심내고 도전하여 배움에 아쉬움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

만약 충분히 고민을 하였다면, 행하는 것이 옳다. 보통 대학에 오기 위해서 12년을 공부한다. 이 12년 중 우리가 원하는 공부를 하였던 적이 있었을까? 문과,이과 나아가 탐구과목을 선택하는 정도가 전부였다. 또, 어떤 학문을 배운다고 말할 만큼 깊이있는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나? 학문을 탐구하는 고등교육 기관이다. 무언가를 ‘배운다’라는 행위에 가장 알맞은 기관인 것이다. 이런 교육기관을 다니면서도 원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쉬운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흔히 쓰는 대학 말고 대학의 다른 뜻으로는 경전이 있다. 대학(大學)은 유교 사서삼경 중 사서에 포함되는 것이다. 대학은 공부하는 방법을 담은 경전이다. 이 대학에는 이런 말이 있다.明明덕(明明德), 즉 밝은 덕을 밝게 빛내는 것이란 뜻이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여 명명덕을 이루는 것이 대학생이 해야 할 일 아닐까 싶다. 배움을 위해 용기를 내는 학생이란 얼마나 멋진가. 학문이라는 덕을 쌓아 그것을 더 밝게 빛낸다면, 그 빛은 언젠가 우리의 앞날을 빛낼 것이라 믿는다.

2024학년도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사례집

DAEGU UNIVERSITY

제목	새로운 학문을 전공한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의 발전과 도약		수상	장려상
			학과(부)	유아교육과
	주제	복수전공	학년	4학년

새로운 학문을 전공한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의 발전과 도약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학년 1학기부터 초등특수교육과를 복수전공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21학번 000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복수전공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 곧 이수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학적변동 사례 수기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여 제가 복수전공을 하게 된 계기, 과정, 전후변화, 느낀점을 복수전공이나 전공에 대한 고민을 가지신 많은 분들을 위하여 솔직하고 진솔하게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수전공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큰 이유는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입시기간에 우연한 계기로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저 자신이 그러한 특수교육에 기여하고자 하는 강한 결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편견들을 제가 조금이라도 줄여 물질적 복지 뿐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부족한 복지를 강화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적절한 교육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꿨고 그렇게 하기 위해 제가 특수교육을 전공하여 특수교사가 되어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복수전공을 어떤 절차를 거쳐 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복수전공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특이하게도 대학을 선정할 때부터 특수교육과로의 복수전공을 염두에 둔 케이스입니다. 특수교육을 전공하기 위해 특수교육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을 먼저 살펴보았고, 대구대학교는 1961년 국내 최초의 특수교육과를 개설하여 초·중등 특수교사를 양성해 오고 있는 학교이기에 특수교육 분야에서 전통이 깊고 전공실습의 기회도 교내에서 가질 수 있으므로 ‘꼭 대구대학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여 대구대학교를 최종 지망하였습니다. 입시 원서를 넣기 전 대구대학교 입시요강, 자료실등을

찾아보며 특수교육과로의 복수전공이 가능한지, 복수전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미리 알아보았으며 학교 측에 문의하여 특수교육쪽 학과를 복수전공 하려면 조건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한 학생이 많을 경우 학점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셔서 저는 1학년 1년동안 학점 관리에 최대한 전념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대학에 처음 입학하여 20살이 되어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동안의 힘들었던 입시 공부에 대한 보상으로 여러 취미활동도 즐기고 싶은 마음, 대학교에서 만난 동기들과의 모임에도 빠짐없이 참여하면서 어울리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특수교육을 전공하기 위해 대구대학교에 왔기 때문에 무조건 복수전공에 합격해야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마치 고등학생 때의 수험생처럼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듣고, 빠짐없이 내용을 정리하고 그 외에 레포트나 과제 제출, 출결 관리도 최선을 다해 임하였고 그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은 것인지 1학년 1학기에는 학점 4.32, 1학년 2학기에는 만점 4.5점을 취득하였습니다. 성적이 복수전공의 합격에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확신이 어느정도 든 저는 복수전공 신청기간을 맞아 1학년 2학기 복수전공 신청 기간에 초등특수교육과로의 복수전공을 신청하였습니다. 12월쯤에 합격 결과를 통지받아 2학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복수전공을 시작하였습니다.

복수전공만 합격하면 이후에 큰 걱정이나 난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복수전공을 합격하고 난 뒤에는 학점관리에 힘썼던 지난 1년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복수전공 과정에 있어서 제가 느낀 어려움과 그에 대한 극복경험에 대해서도 서술하려합니다.

먼저 첫째, 추상적이었던 전공 영역을 전공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영역으로 정하여 전공 선택을 해야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특수교육’에서 어느 특수교육을 전공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선택해야했습니다. 이것은 곧 어느 연령대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할 것인지 정하여 학과를 구체적으로 좁히는 일이었습니다. 대구대학교에는 특수교육관련 학과가 교육대상자에 따라 분류되어 총 3개의 학과가 설치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우선이었고, 어떤 연령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하기를 원하는지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가장 많은 탐색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학기중에도 틈틈이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등으로 세 개의 학과중 저에게 가장 적합할 것 같은 학과는 무엇일지, 어떤 연령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제가 가장 잘 지도할 수 있을지, 각 학과의 장단점이나 차이점은 무엇인지 자료를 수집하며 저 자신에 대해서 꾸준히 성찰해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초등특수교육’으로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현재 초등특수교사이신데 유튜브에 특수교사를 희망하는 학

생들을 위하여 관련 영상이나 조언을 꾸준히 올리시는 유튜버분 ‘특부심 가득한 특수교사, 마이 쏹’ 님의 영상에서 마치 저와 같이, 유아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 중 어느 곳으로 학과를 정해야 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 본인의 의견과 기준을 알려주신 영상을 시청한 후였습니다. 유아기의 특성과 유아기에 시행되는 교육의 방식등 유아기 교육에 대해서는 이미 배운 상태이기에, 유아기 이외의 연령대의 지도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고, 중등특수를 전공한다면 청소년기가 되어 체격이 커진 학생들을 지도해야할 수 있는데, 제가 체격이 큰 학생들을 다루기에는 신체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초등특수교육과로 복수전공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둘째, 낯선 학우분들과 수업을 같이 들어야해서 외롭고 적응하기가 힘들었던 점입니다. 수업 특성상 팀활동이 많은 수업이 존재하여 거의 모든 수업에서 처음 보는 분들과 팀활동을 해야하기도 했고 처음 보는 학우분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걱정 또한 존재했습니다. 저는 학우분들에게 제가 왜 해당 수업을 듣게 되었는지와 제가 복수전공하는 학생임을 밝히고 다행히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학우분들은 이미 해당 전공의 기초 과목을 수강하신 상태였기에, 제가 그분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전에 수강하지 못했던 기초 분야를 틈틈이 공부하였습니다.

셋째, 많은 수의 수업을 들어야 해서 감당하기 벅찼던 점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복수전공을 하지 않아서 여유롭게 수업 수강신청을 하여 적당한 수의 수업을 수강하는 반면에, 저는 너무 많은 수업을 수강신청하여 들어야 하다 보니 너무 벅찼고,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복수전공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수강해야하는 수업의 수가 많은 것은 앞으로 학점관리를 하는데에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가 남은 3년동안 매 학기 이렇게 많은 수의 수업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넷째, 특수교육이라는 전공에 대한 부족한 저의 전공기초지식도 하나의 난관이었습니다. 1학년 때에 미리 특수교육과 전공을 들어보지 못하고 2학년이 되어 처음 듣다보니, 전공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업을 들어서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도서관에서 특수교육 관련 서적을 대출하여 미리 읽어보고 수업을 듣고, 예습도 철저히 하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저번 학기 수강과목에서 보편적 학습설계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해당 용어를 처음 알게 되었으며 다른 특수교육과 학생들과는 달리 배경지식이 거의 없사피 하여 도서관에서 보편적 학습설계를 다룬 책을 대출하여 읽어보며 보편적 학습설계가 무엇인지, 생겨난 배경은 무엇인지등의 기초지식을 얻은 후에 수업에 임하였

습니다. 복수전공 학과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전공과목을 듣는데에 비해 복수전공을 하게 되면 최소한 2학년에 전공과목을 처음 듣게 되므로 본과 학생들에 비해서 수업을 듣는데 지장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초지식의 격차는 본인이 노력하면 어느정도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저는 제가 1학년 때 쌓지못한 특수교육에 대한 기본 지식을 관련 도서를 통해 최대한 극복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수전공을 하기 전, 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학년 1학기부터 복수전공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복수전공을 하기 전의 1학년 1년간의 생활을 되돌아 본다면, 확실히 여유롭고 저의 전공에 심도있게 파고들 수 있었고, 집중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많았고 그에 따라 저의 전반적 생활이나 관리에 더욱 신경쓸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복수전공을 하지 않았다면 매 학기 수업을 여유있게 수강할 수 있으며, 성적 관리에도 용이할 것이고 고학년에는 수업 수강에 급급하기보다는 취업 준비, 공인 영어시험 준비등에 집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복수전공을 이수함으로써 제가 얻은 경험, 복수전공 후 저에게 일어난 변화는 저의 역량, 예비교사로서의 전문성 함양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도움이 되었던 점은 비장애교육대상자 뿐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 또한 제가 지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교육대상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졌으며, 일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되었다는 것입니다. 통합교육, 통합학급이 이전보다 많이 생겨나는 시점에서 제가 교사가 되었을 때 특수교육에 대하여 공부하지 않고 지도를 하고자 했다면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할 때 어떻게 지도해야하는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교사생활 내내 존재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부분은 제가 복수전공을 함으로써 자연스레 극복할 수 있었으며 예비교사로서의 전문성 함양, 그리고 통합교육의 시행에도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해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느꼈던 것이, 사범대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특수교육학개론’이라는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특수교육학개론’을 수강하여도 아직 특수교육대상자들을 다루기에는 저의 전문성, 전공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등특수교육과로의 복수전공을 통해 특수교육에 깊이 파고들 수 있게 되었고, 각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도방법을 배우게 되면서 여러 장애영역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수전공을 통해 저는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복지’의 요소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상과 대구대학교 교내에서도 장애학생을 위한 복지나 배려를 발견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내

경사로 설치나 엘리베이터의 단함시간이 긴 것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 중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로는, 이전보다 제가 더욱 성취적으로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복수전공을 시도하기 전에는 선택도 잘 내리지 못하였고 항상 우유부단하고 저의 선택에 회의를 느끼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복수전공을 하면서 힘든 동시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존감과 성취감이 많이 향상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복수전공을 통해 느낀점에 대해 서술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를 하고, 대학을 선정하면서부터 충분히 고민하고 결심하게 된 복수전공인데도, 가끔은 ‘내가 너무 선불리 복수전공을 결정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복수전공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수시로 드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개월간 그러한 회의감에 대해서 생각하고 난 뒤 도출한 것은,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수전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수전공을 하면서 얻는 것 또한 많습니다. 정답은 없으며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적합한 쪽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하고, 책임을 진다면 어떤 쪽으로 선택하든 그 선택은 옳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제가 회의감을 느낀 이유를 생각해보며 복수전공을 하게 된 것이 앞으로의 저의 삶에 갖는 의의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떠올려보면 12년 내내 학생 신분이었기에 국가와, 어른들, 부모님이, 그리고 사회가 옳다고 정해준 방식을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영향을 미칠만한 큰 선택을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학원에 다니고, 숙제를 하고 좋은 시험 성적을 내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지난 12년간 정해진 삶을 살아오면서 일상에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구매할 것인지 등의, 일상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작은 선택 이외에 제가 저의 뜻에 따라 저의 삶을 결정하는 선택을 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주변의 도움을 받아 큰 결정을 내려본 것이 어느 대학을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고, 복수전공을 하게 된 것은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로지 저의 생각에 의하여 내려본 두 번째의 큰 결정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아마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한 것인데도 저의 선택에 계속해서 물음을 던졌던 것이라고 추측해봅니다. 그러나 4학년 2학기가 된 지금 저의 그런 물음들에 대한 저의 생각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복수전공에 대한 저의 선택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후회도 하고 생각을 했던 경험, 시행착오는 앞으로의 저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복수전공을 하게 된 경험은 저에게 있어 단순히 하나의 전공을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 제가 스스로 저의 인생을 설계하고 성찰하며 제가 주체가 되는 삶에 도전하게 해준 시작으로서 저

의 인생에 전환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수전공을 하기 전보다, 하고 난 이후의 시간에 저는 저에 대해서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지, 최종적으로 원하는 진로는 무엇인지 되돌아보며 저의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비록 복수전공을 완전히 끝마치는데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복수전공을 하며 감당해야하는 많은 공부량과 선택에 따른 책임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하였지만 복수전공 이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자립과 역량 강화에 힘쓸 수 있는 특수교사가 되고자 하는 저의 노력이 실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례가 대구대학교의 학우분들 뿐 아니라 전공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어 전공을 바꾸거나 복수전공을 고려하시는 많은 학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4학년도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사례집

DAEGU UNIVERSITY

제목	가리워진 길에서 찾은 나침반과 손전등		수상	장려상
			학과(부)	언어치료학과
	주제	편입학	학년	3학년

가리워진 길에서 찾은 나침반과 손전등

유재하 가수의 노래 ‘가리워진 길’은 “보일 듯 말 듯 아른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이라는 가사로 시작한다. 나의 진로, 더 나아가 나의 미래를 그려볼 때 저 문장이 와닿을 때가 많다. 인생 어느 시점에서든 고민과 불안함이 없을 때가 어디 있을까. 다만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대의 후반부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의 인생은 때로는 좌절로, 방황으로, 무기력으로 이어질 때가 있었다. 특히 올해 2024년의 초반, 그것의 깊이가 최고로 깊었다. 말 그대로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나는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편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지금 되돌아보니, 그 시기가 나의 인생의 변곡점이었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어울릴 듯하다. 대구대학교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가리워진 길에 서 있는 나에게 나침반과 손전등이 쥐어진 것 같은 기분이다. 시작에 앞서 나의 수기가 누군가에게 영감과 용기, 그리고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의 전적대 전공은 정치외교학과였다. 고등학교 때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관심이 많았던 덕이었다. 정치외교학과에서 학과 말 그대로 정치외교에 대한 학문적인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그 속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이 내 삶에서의 중요 기반을 만들어주었다. 성격과 가치관,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탐구적인 태도를 가지게 한 것 같다. 어쩌면 편입에 대한 고민, 그리고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전 학과에서 얻은 배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는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하기에는 어려웠다. 그 질문은 바로 ‘나는 무엇을 잘 하며, 그리고 무엇을 잘하고 싶은가?’였다. 분명 인간으로서의 큰 성장을 얻었지만, 진로 및 전문성에 대해서는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어떠한 직업인이 되기 위한 전문성은 부족한 채로 첫 번째 대학을 졸업했다.

우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사회에 어필할 수 있는 특별한 전문적인 ‘무기’가 없다는 것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직업 안정성의 불안함을 동반한다. 그리고 그 무기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2년간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첫 사회생활에서 나의 직무는 대학 내 다문화 관련 행정 업무였다. 일 자체는 재미있었고,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으로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평범한 직무였다. 그래서 새롭게 진로를 고민할 때에 ‘전문성’에 크게 초점을 맞추어 보기로 했다. ‘내가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고민은 자격증/면허증이 있는 학과의 편입으로 나를 이끌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부모님과 학생들이 언어 문제를 호소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오랜 유학 생활 후 학창 시절 언어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후배의 이야기에 흥미가 생겨 ‘언어치료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처음에는 막연한 용기로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에 편입을 지원하였다. 원서 접수 후 약간의 기다림 끝에 본교 편입학 합격 연락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2024년 3월 나는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갔다.

대구대학교에서의 하루하루는 때론 놀랍기도 했고 견문이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 크게 다가온 점은 대구대학교가 구성원의 다양성이 두드러지는 대학이라는 점이었다. 본교는 교내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그 중, 외국인 유학생 버디버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인도와 일본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어 한국 대학 문화를 함께 체험해보는 등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특수장의융합학과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 내가 아닌 사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활동들도 많았다. 구성원의 다양성이 돋보인다는 것은 존중과 더불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학교 분위기 내에 녹아 들어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심지어 축제에서도 놀란 순간이 있었다. 대구대학교의 세심한 배려를 알 수 있었는데, 바로 축제 공연 무대 위의 모든 순간을 수화로 표현해주는 수화통역사가 축제 내내 함께한다는 점이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도 눈에 띄었다. 일상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함께하니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공동체 의식 안에서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배움과 별개로도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모습들이었다.

내가 생각하는 대구대학교의 교육적 목표는 비교과프로그램 역량지수 ‘HEART’로 설명이 가능할 듯하다. HEART의 알파벳 하나하나를 뜻하는 ‘봉사’, ‘자율’, ‘창의’, ‘소통’, ‘협업’, 이 다섯 가지는 점차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덕목들이다. 교내에

서 이를 자연스럽게 체득 가능하다는 것은 대구대학교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를 졸업할 때는 이러한 덕목들이 나에게 더 깊숙이 체화되어있지 않을까. 이러한 가치들은 직업윤리 형성에도 큰 도움을 줄 것 같기에, 평생 가져가야 할 인생 철학이 만들어지는 기분이 든다. 진심으로 대구대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큰 배움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학과를 완전히 바꾼 나에겐 언어치료학과 편입한 직후의 모든 것이 신기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좋았던 것은 학생들을 위한 언어치료실습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보통 실습은 외부 병원에 나가야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학교 내에 언어치료실습실이 존재함과 동시에 그 안에서도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기에 부담감을 조금은 덜고 실습할 수 있었다. 교내에서 실무 경험치를 쌓아서 나가면 직무에 적응하기 비교적 쉽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도와주실 교수님들이 언제나 주변에 계신 것도 상당히 큰 장점이다. 전적대학에서 입학 당시에 막연하게나마 존재했던 나의 진로계획이 시간이 지나며 흐릿해져 갔다. 실용성보다는 원론적인 선택이 강한 학과라, 실무에 대한 모든 경험을 스스로 찾아서 경험했어야 하는 점이 힘들었다. 이 때문에 뚜렷한 미래를 머릿속에 그리고 구현해내기가 쉽지 않았다.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의 교내에서 가능한 다양한 실습 기회와 언제나 학생들의 방문을 환영해주는 교수님들 덕에 전적대학에서 겪었던 추상적이어서 어려웠던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언어치료학과에 점점 적응하고 여러 과목의 수업을 들으며 나는 ‘청각’에 관련하여 호기심이 생겼다. 나는 사실 한쪽 귀의 건강이 좋지 않다. 귀에 관련된 수술도 했었고 종종 몸이 안 좋거나 감기에 걸릴 때는 귀가 잘 안 들릴 때가 있다. 특히 ‘청각장애언어재활’ 과목을 들을 때 귀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었던 경험에 자연스럽게 이입하게 되면서 청각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잘 들을 수 있어야 언어를 학습할 수 있다’는 이 중요한 조건을 수업에서 처음으로 생각하게 된 순간, 이 분야가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이 호기심은 나아가 ‘한번 잘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만들어냈다. 이 호기심과 의지가 내가 미래에 나를 한 분야에서 ‘스페셜리스트’로 이끌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상대방의 상황을 나의 상황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과 함께 학과에서 배운 전문지식까지 겸비된다면 정말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용기가 들었다. 앞으로 해야 할 것들과 배울 것들이 훨씬 많지만, 헤쳐나갈 원동력이 되기에 충분할 것 같았다.

그럼 나의 첫 학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 어느 정도 예상 되겠지만 사실 말 그대로 쉽지 않았다. 요약하면 어떻게 가는지 모를 하루하루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일주일, 한 달, 시험,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 한 학기가 끝나있었다. 교재에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가득하고, 그래서 수업이 어렵고, 시험은 떨리고, 실습은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잘 하고 있는가?’의 의구심이 자주 함께했다. 편입 처음부터 모두 에이 플러스를 받아보겠다는 나의 출사표도 당연히 실패했다. 그렇게 높은 학점을 받지도 못했다. 그런데도 학기가 끝났을 때 나는 엄청 만족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한 학기의 시간이 고스란히 나의 내면 어딘가에 차곡히 쌓인 느낌이었다. 나에겐 사실 완벽한 학기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다.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았을 때 남아 있는 발자국들을 보고 뿌듯해하며 다시 걸어가는 힘을 얻는 삶이 필요했던 것 같다. 이 수기를 쓰는 10월의 나도 여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헤엄치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그런데 정말 충만한 기분으로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머물 남은 시간이 진정으로 기대된다.

편입 후 많은 것들이 변했다. 우선,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졌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가,’ ‘애초부터 이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가 옳은 건가.’ 끊임없이 답이 없는 질문을 던졌던 과거였다. 현재 나는 이제는 나만의 길을 잘 개척하여 나아가고 있음이 느껴진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15년 가까이 고민했던 ‘나’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누구이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답을 학교를 다시 다니며 찾아가고 있다. 앞으로도 나는 인생의 가리워진 길 위에 있겠지만 이제 나침반과 손전등이 쥐어졌기에,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가지면서 떨림을 설렘으로 바꾸는 자세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하루하루 충만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나와 같은 학우들도 대구대학교에서 나만의 나침반과 손전등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무리는 우리 대학의 마스코트 호랑이 ‘두두’의 이야기로 해야겠다. 나는 두두를 좋아한다. 일단 호감으로 생겼고 귀엽다. 휴대폰 그룹톡도 두두를 쓴다. 두두의 스펠링은 대구대학교의 ‘DU’지만 다 영어 ‘do’와도 동음이다. 그래서 두두를 보면서 ‘그냥 해보자’라는 생각이 겹쳐서 들 때가 가끔 있다. 음... 그냥... 무엇이든 열심히 해봐야겠다. 우리 학교는 마스코트를 참 잘 만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과 새로운 세상을 열 기회를 제공해준 대구대학교, 본교 언어치료학과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

2024학년도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사례집

DAEGU UNIVERSITY

제목	대구대학교 OST		수상	장려상
			학과(부)	사회복지학과
	주제	편입학, 복수전공	학년	3학년

대구대학교 OST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2020년 2월, 학창시절이라고 일컫는 풋풋한 햇살에 별이 드는 아침에서 오후로 점차 접어드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인 20세에 나도 모르게 훌쩍 지나 성인이 되었다. 사회 초년생, 꿈이라고는 어렸을 때 무궁무진하게 현실에 상관없이 꾸던 꿈과 잠잘 때 꾸는 꿈이 전부였던 ‘나’는 사회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마치 갓난아기가 걸음마를 막 시작하는 듯한, 세상으로의 발걸음과도 같았다. 고3의 마지막을 세상의 물결에 휩싸여 하루살이처럼 하루를 견디기 위해 살았다. ‘취업’이라는 명목하에 공고가 내려오면 원서를 내고 면접을 봐야 할 때면 면접 준비를 하고 그렇게 생각 없이 떠밀리듯, 방황과 함께 살아왔다. 그렇게 추운 겨울의 계절이 지나고 봄이 올까 싶을 때쯤 아무 직업도 없이 학생이라는 신분을 벗고 사회로 나왔다.

나와 같이 졸업한 친구들의 극소수의 2%는 금융권을 갖고, 그중 10%는 회계, 세무 분야의 사무실로 취직했고 40%는 생산직으로 들어갔다. 나머지는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혹은 무직으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다. 그렇게 사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게 되었다.

오랜 기간의 공백 사이에도 고등학교 취업 부서에서 연락은 계속 왔었고, 몇몇 사무실에 이력서를 가지고 면접을 보았으나 공허함으로 가득 찬 내게서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지경이였기에 계속 번번이 떨어졌었다. 여름이 오기 전까지 1살 일찍 학교에 들어간 19살의 ‘나’는 알바를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택배 알바를 시작으로 과일 공장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코로나19가 터진 7월에 새롭게 생긴 코로나 진단 키트의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코로나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회사에서는 어린 ‘나’를 받아주었고 그곳에서 1년이라는 시간동안 일할 수 있었다. 처음 생산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2~3달 차에 품질이라는 부서에서 회사 내부적으로 사람을 모집한다는 얘기에 2~3일에 걸쳐 계속하고 싶다고 자원했다. 그리고 난생처음 회사 제품에 대한 품질에 대해 알게 되는 첫 시작점이 되었다.

이때를 계기로 방황의 여파는 점차 줄어드는 듯했다. 생산 라인에서 계속 내려오는 제품을 정리하는 일을 했던 ‘나’는 시간만 지나면 쉬고 밥 먹고 퇴근하는 일상에서 생각을 요구하고 문서를 적고 제품을 시험해 보는 ‘품질’이라는 부서에서 해당 부서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이 즐거웠다. 생산직에서는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과 일했다면 이 부서에서는 나와 비슷한 나이의 20대~30대, 많게는 40대의 담당자님과 일을 한다는 것이 좋았다.

그렇게 처음을 시작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잔잔하게 흐르는 하루가 있는 반면에 생산 코드에 대한 실수로 큰 일이 터질 때도 있었다. 생산에 있어 사용되는 제품에 문제가 일어날 때도 있었으며, 기계에 문제나 사람들 사이에서의 문제들도 있었다. 그 와중에도 계속 언급이 되는 문제로 생산 부서에서는 진단키트에 대한 생산을 계속해 내야 하는 상황과 품질부서에서는 진단키트에 대한 품질의 문제를 잡아야 하는 지속적인 부담감이 있었다.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전체를 담당하는 반장님과 A, B, C 등의 각각의 라인을 맡는 부반장님, 바깥에 포장을 담당하는 구성원들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테면 문제가 생긴 제품을 빼야 하는데 넣고 보내버린 상황이라든가 전달에 있어 말이 잘 못 되는 상황이 벌어지곤 했다.

지속적인 잔업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어도 같이 함께 한 팀원들과의 시너지로 힘든 줄도 모르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일을 마칠 때면 저녁을 같이 먹고 늦게까지 놀면서 가족들보다 더 많이 만나고 같이 있는 사이가 되었다. 하루도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렇게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던 행복했던 때는 해가 저무는 것처럼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다.

기계가 들어서면서 한 곳에 같이 있던 팀원들이 흩어지는 것은 물론 일도 새롭게 생겨났고, 사람들의 수도 점차 줄여져 갔다. 그러나 진단키트 회사도 새롭게 생겨난 지 몇 달이 채 되지 않았고 생산 과정에서 제품의 기준도 확실하게 명확해지지 못한 상황 속에서 기계까지 들어오니 그야말로 정신이 없었다.

기계와 생산자들이 만드는 생산라인에서의 문제도 있었지만, 부서 안에서의 인원 확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계속 품질 부서의 인원을 뽑는 탓에 한 가지의 일에 2~3명이 몰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새롭게 교육해야 했고, 적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쉽게 나가버리거나 불만이 제기되는 일이 생겨났다. 이렇게 여러 문제가 쌓아짐과 동시에 터지기도 하면서 반복적인 문제가 일어났고 결국은 우후죽순 기계설비자며 품질 부서의 인원들이 나가버리는 사태가 일어났다. 여파와 함께 코로나도 잠잠해지는 시기가 찾아왔고 인원 감축의 이유로 ‘나’도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생각만 하고 있던 워라밸을 찾기 위해 학원도 다니면서 무엇을 할지 고민을 하고 내

인생을 찾아갈 때쯤 맞이했던 것이 학점은행제였다.

다시 어렸을 때 꿈꿨었던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의 키워드를 봤을 때 가슴이 뛰었다. 꿈이 다시 숨을 쉬었다. 그동안의 내가 진단키트에서 모아뒀던 자금을 가지고 이수 관련 상담을 받고 수강하면서 동시에 평일에 편의점 야간 알바, 주말에 동전 노래방 청소 알바를 했다. 온라인으로 과목을 듣고 과제를 수행하면서도 배우는 점은 있었지만, 한편으로 채워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 '나'를 오랜만에 만난 품질 부서의 동료들은 '너 나이대에는 친구들 만나고 놀고 할 시기인데'라며 얘기를 했고, 이 말에 대한 자극과 함께 한편으로는 대학 등록금이나 자금에 대한 걱정이 들었다. 그러던 와중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중 대구대학교를 다니는 친구와 전문대 2년제를 나온 친구를 만나면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같은 시기에 하던 2~3개의 알바를 하던 '나'는 힘들어서 모두 그만두고 잠깐 쉬다가 카페 아르바이트를 발견하게 되었고, 만난 카페 사장님과의 대화에서도 '네가 필요하고 원한다면 대학에 들어가라. 한 번쯤 너 나이에 너의 도래를 만나보고 그 안에서 배우는 과정도 나쁠 건 없다.'라는 말씀으로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되었다.

여러 주변 조언과 정보, 경험, 끊임없는 생각의 계기로 신중하게 알아본 사항들에 대해 부모님께 하나씩 설명해 드렸다. 등록금과 관련해서 편입생에 대한 지원금을 첫 학기에 받을 수 있다는 말과 한국 장학재단에서 등록금, 대출 등과 관련해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이를 이용한다면 부모님께 금전적으로 의지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정말 필요로 하다면 말하겠지만 되도록 의지하지 않고 혼자 알바해서 돈을 충당해서 쓰거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타서 쓰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의 의지를 알았던 부모님은 허락을 해주었고, 9-10월 원서 접수를 하고 합격 소식이 들리자마자 준비를 같이 도와주셨다.

11월의 겨울이었던가 떠나면 버스길에 오른 나는 면접하러 가면서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이제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을 것만 같은 '대학'이라는 곳에서 잠깐 맞이한 풍경과 사람들은 나를 설레게 하였고 3월, 가족들과 같이 정들고 가족처럼 가까웠던 카페 아르바이트도 접게 되었다.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였다.

행복도 잠시, 내 앞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다. 그동안의 모은 학점들로 편입하였고 학교에 들어왔지만, 문제는 학교 내부 시스템에 대해 하나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대구대학교를 다니는 친구의 힘입어 정보를 모으고 학과의 선배님들과 동기들과 학과의 여러 문의 끝에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정착할 수 있었다.

편입이라는 것은 '새로운 환경의 적응'인 것 같았다. 그때 당시에는 1학년 새내기로 봄비던 캠퍼스

퍼스 안에 넓은 대지를 가진 대구대학교에서 살아남기란 힘들었었다. 먼저 편입생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학과 측 학생회에서 늦었을 뿐만 아니라 학과 사무실에서도 신입생에 대한 처리 절차로 바빴고, 모든 게 신입생만을 위한 상황들이었다. 그 가운데에서 편입생 중 적응을 하지 못해 몇 명이 나가는 일이 생겼다.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에서는 그다지 좋지 못한 환경이었다. 환경 속에서 얼마나 버티느냐가 관건이었다.

쉽게 결정하고 온 선택은 아니었기에 끝까지 버티자는 생각으로 전공을 비롯한 학과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등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겼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만나면서 많은 것을 물어보고 얻었으며 직접 발로 뛰어다녔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알아갔다.

그 과정에서 얻는 것도 많았다. 특히나 수업에서는 꿈을 구체화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사례 관리론'에서 교수님께서 우스게 소리로 '사회복지사는 오지랖 많아야 해요.'라고 하셨다. 그 말이 아직도 생각만 하면 웃음 짓게 되고, 오지랖이 많았던 '나'에게 시사하듯 사회복지사라는 일이 나에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문장이다. 이 수업에서 넓게는 국가와 정부 차원, 가까운 지역사회와의 관계망을 이어 개인에게 까지 미치는 과정들을 들으면서 '나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례 관리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생각이 굳게 자리 잡은 데에는 마지막 수업의 하나로 들었던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시는 사례관리팀 사회복지사분의 특강을 들으면서였다. 이 외에도 들었던 '정신 건강사회복지론'에서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해 조금이나마 깊이 알게 되었고, '노인복지론'을 통해 노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였으며, '장애복지론'에서는 현실적인 장애인들의 삶을 노련하게 설명해 주시는 교수님의 말씀으로 현실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까지도 알 수 있었던 수업이었다.

이전 학점은행제와 달랐던 점은 쉬운 온라인 수업과 실제 대면을 통한 실습수업이 있으나 직접 만나서 교류하며 쌓는 대학과는 차별화된 것이 많다는 것이다. 배움은 똑같이 쌓을 수 있으나 깊이 정도가 다르며 '학생'이라는 신분과 소속,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다는 점과 수강하는 나이대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는 등이 확연히 달랐다.

편입의 나날들이 빠르게 저물었고, 어느덧 익숙함에 자리 잡은 '나'는 복수전공을 생각하게 되었다. 일단 주변에서는 부. 복수를 한다고 하면 '바쁘겠다.'라는 단어가 먼저 자리를 잡았다. 실질적으로 주변에 하는 동기과 선배님들을 보면 바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유로운 사람들도 있었다. 각자의 케이스마다 다른 것 같았다. 그 말을 듣고 긴가민가하기도 하고 지레 겁먹은 것도 없지 않아 생각에 남아 있던 '나'는 할 수 있다면 해야겠다는 초심과 배움의 의지로 신청하게 되었다. 졸업이 늦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은 금방 사그라지지

않았다. 내가 했던 프로그램들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회복지'에서 배운 과목을 종합적으로 혹은 '프로그램개발과 평가'라는 과목으로 비추어 봤을 때 프로그램이라는 요소는 현재의 트렌드를 알 필요가 있었고, 실행했을 때 사회의 영향도 및 기여도, 이용자에 대한 관심도와 접근성 등 단순히 개발하고 평가만 할 것이 아닌 여러 부분에서 생각해야 하는 하나의 사업 아이템이자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사회복지기관이고 수행자가 사회복지사인 것이다.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얼마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지, 고객들의 욕구가 해당 아이템으로 얼마만큼 충족이 되는지 등에 따라 기업의 평판과 인지도가 달라지듯이 사회복지의 영역도 그러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기관도 국가 혹은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하는 곳, 사설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운영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정부나 사업체의 지원금을 받거나 홍보의 효과로 후원을 받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기관이 하나의 사업체이고 그 안에서의 경영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큰 목표로 자리 잡고 있던 '창업'에 있어 배움의 필요성을 느껴 2학기부터 수강하고 있다. 상업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경영에 대해 언급이 되면 반갑기도 하다. 그 당시에는 꿈이 없이 시험을 위한다는 하나의 생각으로 했던 과목이었지만, 다시 돌아와 배우게 된 수업으로 는 현재, 경영에 대해 선택에 후회 없이 재미있게 배우고 있는 요즘이다.

먼 길을 돌아오게 된 지금, 한 편으로는 22학번 동기들보다 1년 늦게 들어온 '나'에 대해 1년 더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도 문득 있지만 그만큼 배움이 더 달콤하고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진다. 스치는 인연으로 도와주고 응원해 주었던 모든 사람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2024학년도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사례집

DAEGU UNIVERSITY

제목	진정한 나를 찾기까지		수상	장려상
			학과(부)	수학교육과
	주제	편입학	학년	4학년

진정한 나를 찾기까지

인생 첫 ‘무모한 도전’

성적에 맞춘 적당한 4년제 대학에 진학하여 2년간 기계공학을 전공하며 나의 적성과 흥미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어 그 길로 휴학계를 내었다. 당장 기계공학을 관둔다고 해도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전혀 몰랐기에 나의 인생의 첫 ‘무모한’ 도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휴학 직후 좋은 제안으로 수학 학원 강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학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점차 늘면서 나에게는 아주 작은 꿈이 생기기 시작했다. 바로 이 아이들에게 단지 수업이 아닌 ‘교육’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학원 강사로서 항상 ‘점수’라는 결과만 바라보며 수업의 능력과 효율만을 고민하는 모습에 점차 상실감이 느껴졌고 마치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강사로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었던 배움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 같다.

학원에는 본인이 점수가 더 높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며 그저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애석하게도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이보다 더욱 안타까웠던 건 학원에선 이런 아이들은 잘못된 생각을 품은 아이들이 아니라 성적이 좋은, 더욱 질 높은 수업을 제공해야 할 상위권 아이들로 여겼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진정한 교육을 주고 싶다는 꿈은 더욱 확고해졌고 학원 일을 병행하며 편입에 필요한 어학 시험과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를 시작하였다.

대구대학교로 최종 편입학 등록을 앞둔 날, 갑작스러운 타 대학의 추가 합격 전화를 받게 되었다. 추가 합격한 학교는 흔히들 말하는 인 서울 대학의 수학과였다.

혹여나 졸업 후 취업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유리한 길이라 생각이 들어 합격 결과 앞에서 나는 또 한 번 교사의 꿈을 고민한다. 어쩌면 나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을 단 하루밤 사이에 끝내야 한다니 많은 부담감과 걱정들이 앞섰다.

1년간의 기억들을 찬찬히 되짚어 보며 그동안 나는 어떤 이유로 공부를 했고, 그동안의 경험들이 무엇을 위한 시간이었을까를 떠올려 보았을 때, 비로소 나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고등학생 때까지도 나는 항상 아무런 목표 없이 점수를 내기 위한 공부에만 몰두했던 것 같다. 공부의 목적을 찾을 시간도, 고민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냥 남들이 다 해서, 모두가 다 하기에 공부는 당연히 해야만 했던 존재였다. 그에 반해 휴학하면서 지내온 1년이라는 시간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내게 있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다.

진정한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찾기 위해 애쓴 시간이자 처음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생겨 해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시간이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지 알고,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더욱 잘 해내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며 어렵게 쌓아온 시간 같아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1년이었다. 그 아무리 인 서울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교사’의 꿈을 이룰 수 없다면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게 다시 나의 꿈을 향한 확신을 한 번 더 가지고 대구대학교 수학교육학과로 최종 편입학 등록을 하게 된다.

꿈에 그리던 수학교육학과

그토록 원하던 편입학을 하고 난 뒤의 시간은,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채워야 할 졸업학점과 교직학점, 졸업요건, 교직 사정은 너무 많았고 더군다나 기계공학 전공과목 중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단 두 과목뿐이었다.

전 대학의 80학점가량이 모두 교양학점으로 바뀌어 표기된 것을 보았을 때 아주 살짝 흔들리기도 했지만, 겨우 남은 한 줄기의 이성을 다잡고 편입 첫 학기에 들을 수 있는 학점을 모두 전공으로 딱딱 채워서 신청하였다.

입학하고의 첫 달은 내게 적응 기간이자 혼란의 기간이었다. 낯선 기호들과 문자들, 생전 처음 보는 전공 지식과 책,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정말 무슨 패기로 전공 지식 없는 편입생이 3학년 전공만 수두룩 신청했는지 그 무모함을 이해할 수 없지만 모두 재수강 학점을 면한 것만으로도 아주 다행히 여기고 있다.

또 나는 앞친 데 뒤편 격으로 코로나 시대의 대학생이었기에 놀랍게도 대면 수업이 대구대학교에서 처음이었다. 전자 출결과 강의실, 교수님 연구실 그 어느 것 하나 익숙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당시 동기들이 나를 보고 애매한 ‘중고 새내기’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남는다.

어쨌든 수업과 강의실까지 어느 것 하나 겪어본 적 없는 낯선 것뿐이었지만 그중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아무래도 어려운 전공 수업이었다.

앞서 말했듯 학창시절의 나는 무엇이든 남들이 하는 보통 정도는 했고 무엇보다 강사 출신, 그리고 나를 기계공학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수학’은 보통 이상 정도는 했기에 수학에 대해 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처음 겪어본 수학의 전공 수업 내용은 말 그대로 너무 충격적이었다. 이해는 둘째 치고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었다. 개강 첫 주가 지나고 전공 수업에 충격을 받고 부모님께 전화해서 아무래도 여기에 잘못 온 것 같다고 다시 편입해야 할 것 같다고 울면서 얘기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

충격적인 전공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면, 하루는 교수님의 필기를 모두 받아적이고 혼자 공부하다가 첫 줄부터 이해할 수 없어 포기도 해보았다가 어느 날은 필기보단 이해만 하리라 수업만 들어보았으나 수업의 반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게 2주 정도가 지났을 때쯤 교수님의 필기를 다 받아적되, 당일 바로 복습하며 이해해보라는 모범생 친언니의 조언을 듣고 바로 시도해보게 된다.

교수님께서 칠판에 적는 모든 내용을 노트에 따라 적고 놓친 부분은 사진 찍었고, 수업 내용은 모두 녹음하였다. 수업이 마치면 항상 도서관에 가서 이어폰을 귀에 꽂아 하루 치 수업을 다시 들으며 이해하며 필기로 정리하며 옮겨 적었다. 동기들이 시험공부를 할 때도 나는 언제나 수업 내용의 개념을 받아적기 바빴다. 이해조차 하지도 못하는 내용을 문제를 풀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항상 시험 대비는 뒷전이었다.

그렇게 1학기가 끝나고 태어나 처음 받아보는 학점을 마주한 나는 집에서 온종일 울었던 기억이 있다. 눈물로 맞이한 방학은 쉴 틈 없이 바빴다. 학기 중에는 전공을 듣는 거에도 벅찼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 교직 수업과 교육 봉사를 모두 채워야만 했다. 그래도 수학 전공의 늪에 빠져 살던 나에게 교직 수업과 교육 봉사는 새로운 재미와 즐거움을 주었는데, 사범대 학우들을 만나 다양한 토론을 하고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다. 또, 초등학교에서

귀여운 아이들과 교육 봉사를 통해 보낸 시간은 너무나도 힐링의 시간이었다.

2학기 땀, 다문화 멘토링 사업도 병행하며 학기 공부를 했다. 전공 수업들은 거의 1학기과 연계된 심화 내용이었고 너무 힘들었던 1학기를 버티고 나니 전공 6개는 크게 힘들지 않았다. 나름의 여유도 생겼고 무엇보다 이젠 시험 문제를 2번이나 풀어볼 시간도 있었다. 마치 힘들고 그 만두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끝까지 한 그 동안의 시간과 눈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같았다. 무사히 2학기까지 끝나치고 눈물의 방학이 아닌 높아진 성적과 함께 기쁨의 방학을 맞이하였다. 물론 계절학기의 교직과 교육 봉사로 빼곡히 채워져 있어 바쁘긴 했지만 4학년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버티기에 충분했다.

4학년이 되면 사범대생들의 꽃이자 로망인 ‘교생 실습생 기간’이 기다리고 있다. 운 좋게 모교로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된 나는 설렘으로 가득 찬 마음을 품고 기다렸던 것 같다. 사범대생의 4학년 1학기는 교생 실습을 나가기 전에는 기대감으로, 갔다 온 후에는 실습 내내 받았던 에너지와 힘으로 다 보낸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그만큼 교생 실습의 기억은 나의 인생에 있어 몇 안 되는 손꼽히는 순간이었다. 교생 실습 일지에 적어둔 나의 말을 빌려오자면 ‘아이들이 너무나도 예뻐서 그 살아있는 눈동자들이 사랑스러웠다.’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만나곤 했지만, 극히 드물었고 그 아이들에게도 숨겨진 순수함이 분명히 있었다. 현장에서 마주한 감정과 순간들은 정말 겪어보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것들이다. 이젠 정말로 나는 교사가 되어야만 했다.

기적같은 일, 소중한 사람들

이 글에 적어 낸 모든 순간은 ‘진정한 나’를 찾기까지의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다. 또 나의 인생의 기점이 편입 전과 후로 나뉘는 정도로 많은 변화가 존재했던 시간이기도 하다. 편입 전 내게 있어 공부란 아무런 목표가 없는, 땀 흘릴 열매가 없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이었다면 지금은 공부란 내가 하고 싶은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기 위한 수단이다. 또 나중에 내가 꿈을 이뤄 더욱 좋은 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더 풍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같은 공부라는 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마음가짐이 변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꿈을 찾는다는 것과 진정한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변하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기적 같은 일일지도 모른다. 지금 나는 고민과 걱정으로 가득하다는 대학교의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지만, 소중한 꿈을 가지고 준비해나가고 있다. 이는 ‘진정한 나’를 찾았기 때문일 것이다.

언젠가 나의 긴 편입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꼭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처음 편입을 한다고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 너무나 응원해주었다. 지금의 내가 봐도 정말 무모해 보이지만 그때의 내가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그 자리에서 든든히 지켜봐 주셨다. 후에나 들은 이야기지만 휴학한다는 말을 듣고 많은 걱정이 앞섰다고 하셨다. 그렇지만 혹여나 가족들조차 걱정한다면 내가 정말 걸어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될까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아니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또 다른 길을 찾아보면 되고! 분명 좋은 경험이 될 거야”라는 말로 언제나 위로해주셨다. 부모님의 이 말씀 덕에 세상에 모든 경험은 살아가는데 좋은 거름이 되어줄 것이라는 배움을 얻었다.

수학교육학과 교수님들께도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은데, 학기 초반 잘 적응하지 못했을 때 잠깐 상담하자고 먼저 불러주셔서 다 어렵다고, 아무래도 해도 늘지 않을 것 같다는 나의 말에 “OO 학생이 힘든 건 남도 다 어려워요, 교수인 나도 매일 보고 오래 걸리는 걸요, 어렵다는 건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라고 해주시던 OO 교수님, 세상 무심한 듯 보였지만 질문도 친절히 다 받아주시고 알려주시고 약간의 쓴소리와 함께 공부할 전공 서적도 소개해주셨던 OO 교수님, 편입생인데도 불구하고 전공에 관한 공부 방법을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이라며 임용에 필요한 도움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도와주겠다고 해주신 OO 교수님, 항상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준비해야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OO 교수님, 더불어 먼저 다가와 준 학과 동기들, 올해 편입해서 들어온 언니들과 소중한 친구, 오래된 소꿉친구까지 모든 인연들 덕에 잘 적응해내고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나, 인생의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기회’

최종적인 나의 꿈은 다양한 아이들을 포용하고 잠재력을 발현시키며 아이들의 성장을 끊임없이 돕는 교사이다. 다양한 아이들을 가르쳐오며 단순히 혼자만 이끌어가는 수업에 그치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가치를 깨닫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노력해왔다. 수업 중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수학이라는 과목을 그저 ‘딱딱한 기호와 숫자’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직접 창작해 낼 수 있는 ‘수단’과 서로 협력하며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수학을 받아들이게끔 돕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놀랐던 점은 아이들은 본인이 목표한 것보다 더욱 높은 곳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짧은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흥미와 재능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후엔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 나아간다 점이였다. “선생님, 이 풀이법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네요!”제가 방정식 부분

에 자신이 있는지 몰랐어요!”라고 웃으면서 말해주는 아이들의 모습이 때론 내게도 큰 도전을 주곤 한다.

특히, 아이들이 내게 남기는 ‘물음표’는 항상 나를 끊임없는 배움의 자리에 서게 했다. ‘이 개념은 과연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더욱 좋은 길로 알려줄 수 있을까?’ ‘무엇이 아이들의 동기 유발에 도움이 될까?’라는 내게 스스로 던지는 질문들을 통해 아이들의 궁금증 어린 눈빛과 함께 나는 항상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었다.

쫓기듯 시작한 인생의 첫 ‘무모한 도전’은 작은 꿈을 갖게 했고 더 나아가 큰 도전을 주었고 이제는 진정한 나를 발견한 나의 인생의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그 속에서 아주 많은 걸 배우고 깨닫고 느낄 수 있었다.

분명 아직도 자신이 나아갈 길과 내디뎌야 할 발걸음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아직 어리고 젊기에 넘어져도 보고 실패해도 그 ‘무모한 도전’을 해볼 가치가 있다고 감히 말해주고 싶다. 한 번쯤 넘어져 본다면 다시 일어날 법을 찾고 또 넘어지는 게 두렵지 않을 것이다.

물론 지금의 길이 완벽한 나의 길이라는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또한 좋은 경험이자 더 나은 나로 향하는 거름이 될 것이라 감히 예상해볼 수 있다. 진정한 나를 찾기까지의 길 말이다!

이 글을 본 모두가 어찌면 인생의 ‘소중한 기회’가 될지 모르는 ‘무모한 도전’을 언젠가 꼭 한 번 품어보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글을 마친다.

2024학년도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사례집

DAEGU UNIVERSITY

제목	전과를 경험하며 느낀 것들		수상	장려상
			학과(부)	컴퓨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주제	전과	학년	3학년

전과를 경험하며 느낀 것들

저는 어릴 때부터 IoT 기기와 같은 임베디드시스템에 대한 흥미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대구대학교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에 입학 하였고, 전공수업을 듣기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1학년 때에는 전공수업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교양과목을 주로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에는 학과명이 인공지능학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요즘 뜨거운 분야이고, 임베디드시스템과도 연관이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군 전역 이후에 복학할 때가 되니 학과명이 한 번 더 바뀌어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AI소프트웨어학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학과는 인공지능의 기초부터 응용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학과로, 머신러닝, 딥러닝, 거대언어모델(LLM) 등의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학과입니다. 하지만 저는 임베디드시스템에 관심이 있어서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에 지원을 한 것인데, 인공지능 관련 학과로 바뀌어서 전과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컴퓨터의 좀 더 근간이 되는 것부터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컴퓨터공학과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하여 4학년에 전공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인공지능을 주력으로 공부해 보고 싶은 마음이 없던 저는 컴퓨터공학과로 전과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여러 학과를 알아보고 편입도 고려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구대학교에서의 생활이 매우 만족스럽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입보다는 전과를 통해 자신의 관심 분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학과로 이동하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전과할 때에는 자신의 학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과할 때에는 자신의 학점과 면접 점수 등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전과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 성실하게 공부하고, 수업에 참여하고, 과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전과를 하기 전에도 수

업 자체는 열심히 들었기에 학점 자체는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전과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과를 희망하는 학과의 요구사항입니다. 학과마다 전과할 때 필요한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학과는 특정 과목을 수강하거나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하고, 일부 학과는 면접이나 시험을 통해 전과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학과의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학과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전과 관련된 일정, 요구사항, 절차 등을 자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학과에서 발표하는 전과 관련된 공지 사항이나 안내문 등도 잘 읽어보아야 하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담당 교수님께 문의해야 합니다. 전과는 본인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과는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한 걸음입니다. 저는 전과 후에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여러 학과를 알아보고 편입도 고려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구 대학교에서의 생활이 매우 만족스럽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입보다는 전과를 통해 자신의 관심 분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학과로 이동하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학적 변동을 하기 위한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것은 바로 전과하고자 하는 계기입니다. 전과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적과 준비가 충분히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과 후에 대학 생활에 있어서 더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과를 하기 전에는 자신의 이유와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전과를 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수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지도교수님과 상담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도교수님과 상담을 하면서 전과를 결심하게 된 계기와 목적, 그리고 전과 후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등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지도교수님께서는 전과에 대한 조언과 의견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학과마다 전과 때 필요한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학과는 특정 과목을 수강하거나 특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과를 희망하는 학과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일정, 요구사항, 절차 등을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과 관련된 공지 사항이나 안내문 등도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전과는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한 걸음입니다. 저는 전과 후에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졸업요건입니다. 학과마다 졸업 시험, 졸업 작품, 졸업 논문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전과를 해서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보통 졸업요건은 전공자도 신경을 꽤 써서 달성해야 하는 과제이니만큼 고려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자면 전과를 하기 전에는 학과에서 Python 언어로 인공지능의 기초부터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저는 인공지능이 신기하고 흥미는 있지만 인공지능을 본업으로 삼을 생각이 없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는 수학에 약해서 좀 더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 저는 어릴 적부터 컴퓨터 구조나 운영체제 등 다른 지식이 더 많고 서버 등도 간단하게나마 다루어 보았기 때문에 다른 학과의 커리큘럼이 더 적합해 보였습니다.

전과 결정을 내리고, 컴퓨터공학과로의 전과 과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업 내용의 변화, 새로운 교수진, 그리고 코딩과 알고리즘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초보자로서 자신감을 잃기도 했지만, 의지와 열정은 항상 저를 밀고 나아가게 했습니다.

저는 19년 3월에 입학하여 20년 2월에 군 휴학을 한 뒤 2022년 3월에 복학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전과 신청은 2학년 2학기가 되기 전 22년 5월쯤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학점이 평균은 되었다 보니 어렵지 않게 합격이 되어서 컴퓨터공학과에서 3학년으로 재학 중입니다. 전과 후에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컴퓨터공학과에서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뛰어넘어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 네트워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못 한 분야들을 탐험하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전과를 통해 새로운 학우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며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나중에 현업에서의 경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과를 통해 얻은 가장 큰 느낀 점은 자신의 꿈과 열망을 추구하고 새로운 도전에 맞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변화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고 나아가는 것은 성장과 성공을 이루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컴퓨터공학과로 전과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전과 전에는 컴퓨터에 대해 잘 몰랐고, 관심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공학과에서 공부하면서 컴퓨터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도구이자, 창의적인 표현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과하고 나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한 학우들이나, 저와 같은 목표를 가진 학우들과 함께 공부하고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질문하고 답변해 주며, 유용한 정보나 자료를 공유하며, 서로의 성장을 돕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친구들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지도교수님께서도 저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전과하려고 할 때, 지도교수님께 상담받았는데, 저의 의사를 존중해주시면서도 장단점과 난관에 대해 솔직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전과를 한 후에도 지도교수님께서 저의 학업과 진로에 관해 자주 물어보시고, 조언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지도교수님의 성실하고 친절하신 태도에 감동받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배우려고 했습니다.

전과한 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공모전에 참여한 것입니다. 저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방학 때 공모전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목표를 가진 몇몇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 공모전에 나갔습니다. 우리 팀은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한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에 참가했습니다. 우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직장을 추천해 주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우리의 앱은 장애인들의 종류와 정도, 성별과 나이, 학력과 경력, 희망하는 근무 지역 등을 입력받아, 그에 맞는 적절한 직장을 찾아주는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공모전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처음으로 공모전에 도전하는 것이었고, 시간이 부족했고, 실력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앱을 개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를 준비하는 등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며, 협력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노력이 보상받았습니다. 우리는 공모전에서 우수상인 주관기관장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큰 자부심과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컴퓨터공학과로 전과하여 다양한 컴퓨팅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던 것이 공모전에 나가기 위한 앱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와 함께 공모전에 참여한 친구들도 모두 열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여 우리 팀의 성공적인 앱 완성에 이바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전과한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열정을 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전 학과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컴퓨터공학과에서의 공부와 연결하게 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과를 통해 얻은 거 깊이 있는 컴퓨터 과학 지식은 저에게 자신감과 동기를 주었으며, 미래에는 취업 측면에서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과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제 꿈인 개발자는 새로운 기술이 매일 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가끔은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로 빠르게 소프트웨어 시장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최신 트렌드에 적응하는 것에 능숙해야 합니다. 개발자를 준비 중인 저에게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것이 이번 전과 결정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 중 가장 큰 것은 자신의 열정을 따르고 자신의 관심사를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과거의 선택을 반성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컴퓨터에 대해 좀 더 포괄적으로 배우게 되니 제 적성에도 더 맞는 것 같고, 흥미가 생겨서 저는 결론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학적 변동이란 학생 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나 학과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가볍게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단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사람은 자신이 매일 하는 일에 질리고 싫증을 내기 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방학 때 시간이 남아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에게 흥미와 설렘을 느끼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익숙해지고 적응해 가다 보니, 그 일에 대한 도전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거나 그냥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이직하려면 면접 준비도 해야 하고, 일정 조정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해서 바꾸고 싶다는 욕심만 가지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전과나 학적 변동을 할 때는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잘 따져보고 결정했습니다.

2024학년도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사례집

DAEGU UNIVERSITY

제목	보이지 않는 미래와 휴학이 두려운 당신에게		수상	장려상
			학과(부)	사회복지학과
	주제	휴학	학년	3학년

보이지 않는 미래와 휴학이 두려운 당신에게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과 꿈 하나씩은 가지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신념은 일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닌 특별한 경험과 사건에 의해 형성되기 마련이며 현재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역시 그러한 사건들의 연속으로 미래를 살아갈 나의 모습을 꿈꾸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전공과 대학을 선택하기 전 나는 늘 우울했으며 남들이 가지고 있는 꿈 하나 없이 시간을 허비하였다. 하지만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담임 선생님과 면담에서 담임 선생님의 경험을 듣고 진심 어린 눈물을 보며 나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새로운 신념이 생겼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혼자 묵묵히 버텨왔던 내가 누군가의 진심을 통해 바뀔 수 있었기에 나도 누군가에게 한 줄기의 빛 같은 사람이자 불품없이 보이지만 절대 쓰러지지 않는 그 루터기 같은 사람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러한 고민 중 사회복지사들의 업무와 역할을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의 숭고한 노력에 전율을 느낄 수 있었다. 그에 남녀노소 국적 불문하고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마음 먹었으며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하고 입학할 수 있었다.

누구나 그렇듯 나의 첫 대학 생활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당시 COVID-19의 추세가 강해 국가에서 다수의 사람이 모여있지 못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나의 대학생활의 시작은 방 안에서 이뤄졌다. 사회복지 영역에 관심과 신념이 생겨 입학하였고 청춘 가득한 대학생활을 꿈 꾸었던 나였기에 답답함과 아쉬움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모든 수업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었고 막 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이었던 나는 누군가와 관계를 형성하지도 못하였으며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온

라인 영상을 시청하고 과제를 하고 시험을 통해 나 스스로를 평가하였다. 이제 와서 돌아해보면 그 저 핑계에 불가하지만 처음 접하는 영역의 학문이고 비대면으로 강의가 진행되었기에 더욱 어렵게 느껴졌고 대학교의 시스템조차 이해가 되지 않아 많이 헤매곤 하였다. 그렇게 1학년 생활을 마무리 하였을 때 평균 4.1이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만족스럽지 못했다. 시험의 난이도가 쉬웠다고 생각했고 배웠던 과목의 내용을 확실히 나의 것으로 만들었냐는 스스로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것이 그 이유이다.

여영부영 1학년 생활을 마무리하고 국방의 의무를 위해 휴학을 한 후 입대를 하였다. 난 자립성이 부족해 혼자 낯선 곳에 가거나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적지 않은 두려움을 느끼곤 하였다. 이런 나에게 있어 군대는 새로운 도전이자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국방의 의무를 위해 무조건 가야 하는 군대이기에 그 사실에 절망하고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기보다는 무엇이든 얻어서 전역하자 라는 생각으로 군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 튼튼한 몸과 체력을 얻었고 현재까지도 쉬는 날 없이 운동을 하며 지내고 있다. 그리고 여러 사람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책임감이 무엇이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배울 수 있었다. 그저 열심히 했을 뿐인데 부사관 지원을 제안까지 받으며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큰 희열을 가져다 주는지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도 내게 큰 변화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다 주었지만 현재의 나를 있게 한 가장 큰 계기를 마련해준 것은 나와 4개월 차이가 나는 후임이었다. 당시 분대장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었기에 후임들의 군생활 적응을 위해서라도 그들과 대화할 일이 많았고 그러한 이유로 그 후임과도 단 둘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았다. 그와의 대화 중에 나는 끝없이 충격받고 깊은 반성을 할 수 있었다. 후임은 나보다 한 살 적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로와 신념이 그 후임만의 색깔로 확실히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군생활을 하다보면 개인정비라는 시간이 있다. 보통 휴대폰을 보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인데 나는 이러한 시간을 운동에 투자하였지만 해당 후임은 그 시간에 공부하고 미래의 본인을 위해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었다. 배움에는 위아래가 없다는 말이 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난 그 후임을 붙잡고 자주 이야기를 나눴다. 물론 처음엔 절망적이었다. 1년간의 대학생활 중에 해놓은 것이 그닥 없다는 점과 마땅한 계획이 없다는 점은 나의 목을 옥죄듯 조여왔다.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신념은 있지만 계획없는 신념은 그 어떠한 것도 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어느새 나만의 목표와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그러다보니 나도 모를 새에 날 옥죄던 압박감은 나의 계획을 반드시 실천하고 목표를 이루며 신

념을 지키겠다는 동기이자 의지이자 욕심이 되어주었다. 그렇게 나는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들과 그 경험들을 통해 성장한 모습으로 전역을 할 수 있었다.

군생활 중 COVID-19 사태가 종결되었기에 드디어 평범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얼른 복학하고 싶다는 생각에 바로 복학 신청을 하였고 군생활 중 못했던 것들을 하고 먹고 싶었던 것들을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하며 지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복학을 하게 되었지만 1년 동안 좁은 방 안에서 대학생활을 하였기에 이야기를 할 사람도, 밥을 함께 먹을 사람도, 강의를 같이 들을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신념이 있는 내게 있어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내가 좋아하는 말 들 중 “아무렵 어때” 라는 말이 있다. 상황을 직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면 그걸로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난 처음과 다름없는 대학생활을 적응하는데 힘을 쏟았다. 군생활 중 다짐한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성적 관리이다. 물론 1학년 때도 4.1이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마무리하였지만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기에 많은 학생들이 그 정도의 성적은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고 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과거의 나였다면 그저 그런대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목표와 신념이 생긴 나는 끝없이 노력해야만 했다. 강의가 끝나면 나의 발걸음은 늘 도서관이나 근처 카페로 향했다. 그날 배운 것은 그날 복습하고 정리했다. 군대에서 배운 것들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계획을 세우는 습관과 바로 실행에 옮기는 습관이다. 플래너를 통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바로 실천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대로 매일 복습하고 운동하고 지내다보니 나의 2학년 1학기 성적은 4.5로 마무리되어 있었다. 당시의 쾌감과 전율은 여전히 기억에 남는다. 내가 이뤄냈다는 전율과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날 들뜨게 하였고 다음 학기를 준비할 원동력이 되었다. 나의 2학기도 1학과 같았다. 그날 배운 것은 그날 정리하고 복습하였으며 시험기간에는 내가 정리한 내용들을 적어도 4번씩은 읽고 암기하며 공부했다. 물론 공부만 한 것은 아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였다. 꾸준히 운동하며 다져진 체력도 한 몫 했다는 생각이 이 글을 작성하며 든 생각이다. 2학년 1학과 같이 4.5라는 성적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노력을 하였는데 2학년 2학기의 성적은 4.5는 물론이고 150명 중 2등이라는 경험을 안겨주었다.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본 기억이 없는 나였기에 이러한 경험은 남들에 비해 나에겐 더욱 의미있는 것이었다. 여전히 나는 휴학 후 군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3학년이 되어 아쉽게도 4.3이라는 성적을 받았다. 아쉬웠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고 그러던 중 방학과 함께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나갈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가 휴학

중 얻은 많은 가치들 중 하나가 바로 책임감이며 사회복지사라는 목표이다. 그런 내게 있어 실습이라는 기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다. 누군가 내게 당신의 실습은 어떠하였냐고 묻는다면 난 당당히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내게 있어 이번 실습은 미래 사회복지사로서의 나를 찾게 해주었으며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내가 달려온 길이 맞다고 알려주는 이정표를 볼 수 있었던 경험이다. 함께한 실습생들부터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 모두가 내게 책임감있고 근면성실하다는 칭찬을 해주었고 이러한 경험은 나를 자만하게 하지 않았다. 내가 가는 길이 옳지만 더욱 노력할 길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였으며 모든 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나의 신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떠올리게 하였다.

나는 해당 글을 쓰는 과정 중에 고등학교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시간들을 되새겨 볼 수 있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현재 어떤 사람이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자하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질 수 있었고 과거와 같이 나의 신념과 목표는 여전하다. 모든 이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사회복지사가 될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과거의 나처럼 자신들이 밟는 길이 옳은 것인지 혹은 어떠한 길을 가야할지조차 몰라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헤매고 고민하는 것 역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경험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이들이 시간에 쫓겨 충분한 고민없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곤 한다. 대학교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곳이 아닌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끔 인도하는 이정표이자 안내꾼이라고 생각하는 나이에 성급하게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길 바라는 바이다. 휴학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며 그 경험이 과거의 나로부터 현재의 나를 바꾸고 미래의 나의 모습을 꿈 꿀 수 있게 해준다.

앞서 써내려간 나의 경험과 그로 비롯된 나의 무수한 감정, 느낌들이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의 심금을 울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나의 경험이 적어도 단 한명의 사람에게 있어 변화를 이끌어내는 발화점이 된다면 그보다 값진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학적변동 성공사례에 대해 글을 써내려갔지만 성공한 사람은 아니다.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며 성공하는 중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실패하고 실패 중인 사람도 없다. 현재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간마저 미래 성공할 나의 과정 중 하나가 될 것이며 많은 이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과 학적 변동이라는 도전이 가져오는 많은 변화를 알았으면 하는 생각에 바람에 글을 쓴다.

글을 쓰고 있는 현재의 나도 이 글을 읽는 당신들도 모두 성공 중인 사람이다.



사랑 · 빛 · 자유의 전당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2024학년도 학적변동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사례집



사랑 · 빛 · 자유의 전당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3845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아카데미코칭센터
053) 850-5854, 5050